

# Market Frontier

CES 2020을 통해 살펴본 미래 ICT 산업

January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 Contacts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 전창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34

changuichun@kr.kpmg.com

###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Page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2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7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25
IV. 시사점	80
V. Appendix	82

##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 1. CES 2020 개요

CES 2020은 53회를 맞이하며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AI in everyday life)'를 주제로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AI(인공지능), 5G, 8K TV, IoT(사물인터넷),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관련 제품을 선보였으며 300개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됨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주요 내용

참여업체	4,500+	전시 내용
참가자	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국가전협회(CEA) → 소비자기술협회(CTA)로 주관사 명칭 변경('15년)</li><li>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li></ul> <p>&lt;주요 세션별 전시 내용&gt;</p>
미디어	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b>CES Tech East</b>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앤드 월드트레이드센터, 웨스트게이트 호텔, 르네상스 호텔) ➤ AI,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IoT, AR/VR, 게임, 3D프린팅, 드론,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 기술</li><li><b>CES Tech West</b> (샌즈 엑스포 및 베네시안, 팔라조, 원, 앙코르 호텔) ➤ 스마트홈, 피트니스, 헬스케어&amp;웰니스, 웨어러블, 슬립(Sleep)테크, 패밀리테크</li><li><b>CES Tech South</b> (아리아, 파크MGM/파크시어터, 브다라 호텔) ➤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li></ul>
국가	161+	

Source: C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CES 2020 참여업체 중 국내 기업은 390개사(이 중 스타트업은 200개사)

##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 2. Keynote Speech (1/3)

1월 6일의 첫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의 김현석 사장(소비자가전 부문장)은 경험의 시대 도래와 라이프스타일 혁신, 인간 중심 혁신과 착한 기술을 강조하며, 미래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 청사진을 그리는 연설을 함

#### 삼성전자

##### 경험의 시대와 인간 중심 혁신

“ 이제는 경험의 시대(Age of Experiences)이며, 개인별로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 제공이 미래 기술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경험의 시대에는 다양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삼성의 인간 중심 혁신이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이 더 안전하게 첨단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착한 기술(Technology for Good)을 추구할 것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소비자가전 부문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볼리(Ballie)' 공개 및 V2X 강조

##### 사용자 명령에 따라 집안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등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다양한 '홈 케어 수행'

- 첨단 하드웨어와 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를 최초로 공개함
- 공 모양의 볼리는, 이동이 자유로우며 사용자를 따라다님. 개인 맞춤형 케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개인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볼리는 인간 중심 혁신을 추구하는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 방향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로 강조됨

##### V2X(Vehicle-to-Everything) 구현으로 차량과 집, 도시가 모두 연결된 '스마트 시티' 구축

- V2X(Vehicle-to-Everything)의 구현을 통해 자동차를 도시 전체와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 커넥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

## 2. Keynote Speech (2/3)

1월 6일의 연설에는 완성차기업 다임러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오르며, 모빌리티가 강조된 CES의 면모가 나타남. 1월 7일의 연설에서는 항공사 델타의 에드 바스티안 CEO가 연설을 하여 항공 업계 최초로 CES의 기조연설에 참가하며, CES의 변화상과 산업 간의 융합 발전을 보여줌

### 다임러(Daimler)

#### 콘셉트카 '비전 AVTR'에서 강조된 '공생적 유기체'

“ CES에 참가한 여러분은 ‘다음(What’s Next)’에 대한 답을 얻으러 CES에 오셨을 것입니다. 다임러는 130년간 이런 고민을 지속해왔습니다.”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함께 무대에 올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콘셉트카 '비전 AVTR(Vision AVTR)'**를 공개. 비전 AVTR은 도어 없는 차량으로, 승객과 자동차를 '공생적 유기체(Symbiotic Organism)'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다임러 AG 및 메르세데스-벤츠 AG 이사회 의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델타(Delta)

#### '평행 현실' 기술 결합 고객 편의 서비스

“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공항 안내판 알림 '평행 현실(Parallel Reality)' 기술과 결합해 무궁무진한 신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행 현실이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은 개인화된 맞춤형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같은 디스플레이에 개인별로 다른 정보가 보이는 방식. 디트로이트 공항에 연내 첫선을 보일 계획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

##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 2. Keynote Speech (3/3)

1월 8일 연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 플랫폼으로 오는 4월 출시될 '퀴비'의 CEO 및 창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과 밀레니얼 세대의 영상 소비 패턴을 설명함. 1월 8일의 다른 연설에서는 NBC유니버설의 광고·파트너십 대표가 발표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함

#### 퀴비(Quibi)

##### 짧은층 타깃 10분 영상 주력 및 '턴스타일 기술' 공개

“ 10분 내외 영상 중심의 퀴비는 ‘큰 이야기를  
지닌 짧은 영상(Big Story, Quick Bite)’입니다.

퀴비의 ‘턴스타일’ 기술은 스마트폰을 가로로  
들고 있던 중 갑자기 세로로 바꿔도 영상이  
끊김없이 해당 화면에 맞춰서 재생됩니다.  
영상을 넓게 촬영한 뒤 세로와 가로로 잘라  
나중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세로로 들었을 때는  
인물 간 상호작용을, 가로로 들었을 때는 특정  
장면이 강조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멕 휘트먼, 퀴비 CEO (전 휴렛팩커드 CEO, 전 이베이 CEO)  
제프리 카젠버그, 퀴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드림웍스 창업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ontents

	Page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2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7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25
IV. 시사점	80
V. Appendix	82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CES 2020 분야별 주요 트렌드

## 홈 가전

- 8K TV 제품군에서 삼성전자의 QLED TV와 LG전자의 OLED TV 경쟁 구도 속에서,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 8K TV 및 가전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프리미엄 시장 공략 움직임과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모방 확산
- 스마트 홈 가전에서 음성인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삼성과 LG전자는 음식 레시피 등을 알려주는 AI 탑재 냉장고를 선보임

## AI·로봇·데이터

-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지능형 로봇이자 IoT 기기 컨트롤 역할을 하는 '볼리'를 공개하고 LG전자는 AI 발전 및 협력 전략을 밝힘. 구글과 아마존의 AI 플랫폼 경쟁도 가속화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등에서는 요리보조, 보행보조, 바리스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을 선보임
- 애플과 페이스북은 CES 2020에 참여해 데이터 보안을 강조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5G·모바일·통신

- 202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5G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5G 활용 비즈니스 모델 출현 전망
- 5G를 활용한 태블릿과 노트북, TV 등 5G 활용 단말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전자 기기로 확대
-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폴더블 PC 등장 등 폴더블 방식의 확산과 신모델 출시

## 모빌리티(교통)

- CES 2020에서는 자율주행차, 새로운 교통시스템, 스마트 투어리즘 등 차세대 교통수단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름
- 다임러, 현대차 등 10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관련 제품을 전시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이사회 의장과 미국 교통부 장관, 델타항공 CEO가 기조강연을 담당
- 개인비행기, 비행 택시 등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관련 기술도 대거 공개

## 엔터테인먼트·콘텐츠

- 모바일에서는 짧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틱톡 등 솟폼 동영상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으며, 2020년 4월 출시 예정인 솟폼 비디오 서비스 '퀴비(Quibi)'가 공개됨
-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NBC유니버설에서도 신규 OTT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힘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1. 홈 가전 》 삼성전자, QLED와 마이크로 LED 중심 TV 전시

삼성전자는 CES 2020 개최 전인 2020년 1월 5일 TV 관련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이는 '삼성 퍼스트 룩 2020' 행사를 열고 제로 베젤 디자인과 영상·오디오 기능에 AI 기술을 탑재한 8K QLED TV 신제품을 공개. 또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라인업 확대와 함께 하반기 마이크로 LED 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

### CES 2020에서 삼성전자의 8K TV 전시

#### 2020년형 QLED TV 신제품 공개

-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8K TV는 베젤이 거의 없는 제로베젤 디자인과 'AI 퀸텀 프로세서' 탑재를 통해 원본 영상을 8K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업스케일링 기능 강화
- 또한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스피커 사운드가 좌우로 따라 이동하는 'OTS+(Object Tracking Sound)', 주위 소음에 따라 영상 속 인물의 목소리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AVA(Active Voice Amplifier)' 등 오디오 관련 신기술 탑재

#### CTA 인증 8K TV와 세로형 TV '더 세로' 공개

- 삼성전자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소비자기술협회)의 인증에 맞춰 자사 8K TV의 CM(화질선택도, Contrast Modulation) 값을 높임
- 세로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한 모바일 세대의 특성에 맞춰 세로로 화면이 회전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 TV로 보여주는 '더 세로' 모델도 공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공개 및 발매 전망

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150·292인치 대형 마이크로 LED 제품 '더 월'을 전시, 75·88·93·110·150·292인치로 라인업 다변화와 함께 하반기 시장에 '더 월' 제품을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

**마이크로 LED란?** 5~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단위의 초소형 LED 칩 자체를 발광재료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 장점

- 구조가 간단해 얇은 두께를 지니며, 모듈형 제작으로 100인치 이상 대화면 구현 가능
- 완벽한 검은색 표현과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색재현율로 뛰어난 화질 구현 가능
- 잔상과 번인 현상 없음
- 높은 발광효율과 적은 전력소모
- 10만 시간 이상의 수명

#### 단점

- 수천만 개의 LED 소자를 배치하는 정밀한 생산공정이 필요해 생산속도가 매우 느리고 초기가의 가격 책정
- 까다로운 생산공정과 고가의 가격 때문에 아직까지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없음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1. 홈 가전 »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OLED 중심 TV 제품 공개

CES 2020에 참여한 LG전자는 2,044m<sup>2</sup>(약 618평) 규모의 부스에서 대형 OLED 패널을 이어붙여 대자연 영상을 실감나게 재현한 OLED 사이니지 조형물과 롤러블 TV를 주력으로 전시했으며, 2020년 신형 제품 라인업을 공개. LG디스플레이는 CES 2020 개막을 앞두고 OLED를 중심으로 한 3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

## LG전자는 대형 OLED 제품군 전시 주력

### 전시 포인트는 OLED 사이니지 조형물과 롤러블 TV

- 곡면 형태의 OLED 패널을 200여장 이어붙여 관람객 머리 위쪽에 물결 모양의 초대형 OLED 조형물 구현. 바다와 오로라, 빙하동굴 등 대자연 영상을 고화질로 재현
- CES 2019에서도 선보였던 롤러블 TV 20여대를 전시했으며, 아래에서 위로 화면이 올라가는 기존의 롤업(Roll-up) 방식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화면이 펼쳐지는 롤다운(Roll-down) 방식 제품도 함께 전시

### 2020년형 LG OLED TV 라인업 공개

- AI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를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했으며, 55", 65", 77", 88" 등 기존 OLED TV 라인업에 48"형 제품도 추가
- 디스플레이 화면, 구동부, 스피커 등을 포함한 TV 제품 전체를 벽에 완전히 밀착하는 '벽밀착 디자인'을 2020년형 제품에 적용
- 영화, 게임, 스포츠 등 시청 콘텐츠 종류에 따라 최적의 밝기와 화면을 지원하며, 디즈니+, 애플TV+,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 애플리케이션 탑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LG디스플레이의 OLED 중심 추진 전략

### 대형 OLED 핵심 전략

- 대형 OLED를 시장을 선도할 '핵심 제품'으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역량을 집중할 방침

### P-OLED 사업 육성

- P-OLED(플라스틱 OLED)를 향후 성장 기회가 큰 분야로 전망하고 자동차, 노트북, 폴더블 등 새로운 시장 공략

### LCD 혁신 가속화

-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LCD 분야에서는 IT, 자동차 등 기존에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
-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분야는 신속한 사업 조정을 통한 혁신 추진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1. 홈 가전 》 중국 TV 제조사는 프리미엄 제품 공략에 주력

TCL, 하이센스, 스카이워스 등 CES 2020에 참여한 중국의 TV 제조사는 OLED, 8K, 미니 LED TV 등을 발표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냄. 한편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IT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 샤오미는 CES 2020에 불참했으며, 화웨이는 전시 규모를 대폭 축소

### 중국 TV 제조사의 CES 2020 전시에서 나타난 동향

#### 기존의 중저가 위주 제품에서 탈피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 TCL은 미니 LED를 채용한 TV 신제품인 '바이드리안'을 OLED TV와 비교하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내세웠으며, 하이센스는 2개의 LCD 패널을 겹쳐 명암비를 높인 듀얼셀 제품으로 OLED TV와 경쟁한다는 계획
- 중국 TV 제조사는 저가 제품에 의존하던 전략에서 탈피해 신기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아직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평가
- 또한 전시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 판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시제품이며, 한국 제조사의 프리미엄 제품에 비해 화질도 낮은 것으로 보임

#### 한국 TV 제조사의 신개념 제품에 대한 모방

- TCL과 하이센스 모두 삼성전자의 세로형 회전 TV '더 세로'를 모방한 듯한 회전형 TV를 공개
- 하이센스는 LG전자의 롤러블 OLED TV를 모방한 듯한 롤러블 제품인 '레이저 TV'를 선보였으나, OLED 패널을 사용하지 않은 빔프로젝터 방식으로 기술적으로는 뒤처지는 것으로 지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에 참가한 중국 TV 제조사 전시 현황

공개시기	전시 현황
TC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TCL은 CES 2020에서 프리미엄 TV 시장을 겨냥해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인 '바이드리안(Vidrian)'을 공개</li><li>TCL은 또한 삼성전자의 세로형 회전 TV인 '더 세로'를 모방한 회전형 TV 'A200 프로'를 선보임</li></ul>
하이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하이센스는 TV 본체에서 스크린이 위로 올라오면 레이저빔으로 TV화면을 쏴서 구현하는 빔프로젝터 방식의 롤러블 TV인 '레이저 TV'를 공개했으나, 비공개 부스에서만 전시</li><li>또한 LCD 패널 두 개를 겹쳐 명암비를 높인 듀얼셀 LCD TV를 선보였으며 2020년 3분기 미국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힘</li></ul>
스카이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의 가전 회사인 스카이워스는 CES 2020에서 8K TV와 OLED TV 제품군을 전시했으며, 88인치 8K OLED TV를 전면에 내세움</li></ul>
콩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의 콩카는 CES 2020에서 88인치 8K OLED TV를 공개했으며, 2020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55인치, 65인치 OLED 4K TV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힘</li></ul>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1. 홈 가전 》 AI 냉장고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2020에서 AI, IoT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 냉장고를 공개. 삼성전자 패밀리허브는 푸드 AI 탑재와 영상·사진 공유, 카메라 영상 확인, 음악 재생 등 냉장고를 홈 허브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LG인스타류 씽큐는 발전된 AI 적용과 사전 점검 서비스가 차별점

#### 삼성전자, 신규 냉장고 제품 패밀리허브 공개

##### 냉장고에 AI와 IoT 기술 접목

- 패밀리허브는 AI와 IoT를 접목한 냉장고로 '푸드AI'를 탑재해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내부 식재료 자동 인식, 간편한 식료품 온라인 주문 가능
- 삼성전자는 푸드 AI 개발을 위해 2019년 영국의 스타트업 위스크루를 인수

##### 냉장고를 홈 허브로 활용

- 삼성전자는 냉장고가 24시간 전원이 들어오는 기기라는 점에 착안, 여러 생활 가전을 연결하는 홈 허브로 활용한다는 계획
- 가족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패밀리보드' 기능 탑재로 냉장고 외부에 장착된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가족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음악재생 기능을 강화해 홈 엔터테인먼트 허브로써의 역할도 수행
- IoT를 활용한 홈시큐리티로 영역을 넓혀 집 안팎에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LG전자, LG인스타류 씽큐 공개

##### 기존 제품보다 발전된 AI 적용

- LG전자는 CES 2020에서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인공지능을 적용한 냉장고 제품인 'LG 인스타류 씽큐'를 공개
- 내부 식재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남아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추천하며, 식재료가 떨어지면 사용자가 주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 탑재

##### 외부 디스플레이 탑재와 프로액티브 서비스 제공

- 냉장고 내부 카메라와 전면 투명 디스플레이, 노크온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가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를 확인 가능
-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관리하며, 제품의 작동상태를 분석해 예상되는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려주는 '예지 점검' 기능 탑재

## 2. 5G·모바일·통신》 5G, 전시를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로 부각

지난 CES 2019에서 화두가 되었던 5G는 CES 2020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로 모습을 선보임. 5G 단말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태블릿PC, 노트북, 8K TV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스마트 제조 플랫폼, IoT 솔루션 등 5G 기반 서비스도 활발히 공개됨

### CES 2020에서 나타난 5G 트렌드

5G의 산업 적용 및 발전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S 2019에서 등장한 5G가 주로 5G 개념과 기술을 실현하는 시제품 소개에 그쳤다면, CES 2020에서는 미디어, 모바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5G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줌</li> <li>CES 주관사는 5G가 사물 인텔리전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며 향후 10년 간 IT 기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li> </ul>	

5G 기반 단말과 서비스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ICT 기업들은 CES 2020에서 5G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 5G 기반 단말과 함께 5G 응용 서비스를 공개</li> <li>삼성SDS가 공개한 '넥스플랜트(Nexplant)'는 5G를 활용한 제조업 특화 플랫폼으로, 제조 현장에 있는 수십억 개 센서로 데이터를 확보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저감, 안전 등에 활용</li> <li>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는 5G 기반의 'IoT 팩토리'를 선보이면서 식음료 산업, 헬스케어, 농업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에 전시된 5G 지원 주요 단말

제품 (제조사)	전시 내용
갤럭시탭 S6 5G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3.5Ghz 대역대를 이용하는 5G 지원 태블릿 갤럭시탭 S6 5G를 공개</li> <li>이 제품은 클라우드 게임이나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5G 콘텐츠 이용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1분기 출시 예정</li> </ul>
5G 8K TV (삼성전자, SK텔레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2019년 9월부터 공동으로 개발한 '5G-8K TV'를 선보임</li> <li>단말 인접 지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통신 속도를 높이는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을 적용했으며, 8K 기반 멀티뷰 중계나 초고화질 미디어 서비스에 이용 가능</li> </ul>
요가 5G (레노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노버는 5G를 지원하는 노트북 '요가 5G'를 공개했으며, 이 제품은 웰컴 스냅드래곤 8cx 5G를 장착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4G보다 10배 빠름</li> <li>연결성이 강조되는 업무용 PC 시장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5G 노트북 출시가 연이을 것으로 전망</li> </ul>
TCL 10 5G (T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CL은 자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5G 스마트폰 'TCL 10 5G'를 공개했으며, 이 제품은 웰컴 스냅드래곤 7시리즈 5G 칩셋을 탑재</li> </ul>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2. 5G·모바일·통신》 폴더블 기기 확산과 국내 통신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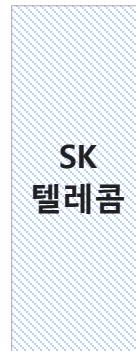
CES 2020에서는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해, 레노보와 델에서 화면이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PC를 공개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열풍이 스마트폰에서 PC, 노트북으로 옮겨가는 양상. 또한 CES 2020에 참가한 국내 통신 3사는 협력과 제휴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

#### CES 2020에서 전시된 폴더블 기기

제품 (제조사)	전시 내용
클램셀 스마트폰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국내 통신 3사에 클램셀(조개껍질) 디자인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으며, 전시장에서는 갤럭시 폴드를 전시</li> </ul>
메이트X (화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웨이는 CES 2020에서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를 국제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전시</li> </ul>
레이저 2019 (모토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토로라는 CES 2020에서 위아래로 접는 클램셀 방식의 스마트폰 '레이저 2019'를 전시</li> <li>'레이저 2019'는 6.2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갖췄으며, 2020년 1분기 발매 예정</li> </ul>
씽크패드 X1 폴드 (레노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노버는 폴더블 PC인 '씽크패드 X1 폴드'를 공개</li> <li>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으로 13.3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li> <li>화면이 접혔을 때는 화면 절반을 키보드처럼 사용하고, 펼치면 13.3인치의 미니 PC처럼 동작</li> </ul>
콘셉트 오리 (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델은 CES 2020에서 폴더블 PC 신제품인 콘셉트 오리(Concept Ori)를 공개</li> <li>13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는 13.3인치 노트북처럼, 접은 상태에서는 듀얼 스크린처럼 작동</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에 참가한 국내 통신 3사 동향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삼성전자, 카카오 등 국내 ICT 기업들과의 협력을 제안했으며, SK텔레콤이 통신기업을 넘어 종합 ICT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공개
- SK텔레콤은 SK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CES 2020에 부스를 마련하고, 5G를 활용한 미디어와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선보임



- KT는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중인 관계로 CEO가 CES 2020에 참여하지 않고, 관계부서 임직원이 CES에 참가해 현장을 점검



- LG유플러스의 하현회 부회장은 5G 이동통신, AI, AR 분야에서 다른 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발굴에 나선

### 3. 모빌리티(교통) » 자율주행 및 전기차

CES 2020의 모빌리티 관련 전시에서는 ICT 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사 간 경쟁이 부각. ICT 기업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영 플랫폼에 주력하는 가운데, 자동차 기업들은 휴식과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춰 차량 내 공간을 새롭게 정의한 다양한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공개

#### ICT 기업들의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전시

**삼성전자, 하만, 소니, 퀄컴 등 ICT 기업들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을 선보임**

전시품 (제조사)	전시 내용
차량용 5G 통신장비 (삼성전자, 하만)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개발한 차량용 5G 통신장비를 BMW 전기차 '아이넥스트(iNEXT)'에 탑재. 고화질 영상, 실시간 맵, 화상회의 등 5G 서비스 구현
디지털 콕핏 2020 (삼성전자, 하만)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개발한 자율주행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디지털 콕핏 2020'을 공개. 8개의 디스플레이와 8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조정하고 음악, 영상 이용 가능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VI) (SK텔레콤)	SK텔레콤은 T맵, AI '누구', 음원 서비스 '플로', OTT 서비스 '웨이브' 등 다양한 자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VI)을 공개
스냅드래곤 라이드(퀄컴)	자율주행차용 운영시스템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공개. 개인용 PC 크기의 기기로 차선 제어에서 전자동 운전 등 기능을 처리 가능
비전-S (소니, 도요타)	소니는 도요타와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비전-S'를 공개. 이미지 센싱 기술과 33개의 센서가 특징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자동차 기업의 차량 관련 전시

**벤츠, BMW, 아우디,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공개**

전시품 (제조사)	전시 내용
비전 AVTR (벤츠)	벤츠는 CES 2020 기조연설에서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자율주행 콘셉트카 '비전 AVTR' 공개. 활처럼 생긴 모습에 투명한 실내 디자인이 특징
i3 어반 스위트(BMW)	BMW는 기존 전기차 모델인 i3의 실내를 호텔 스위트룸처럼 구성한 콘셉트카 'i3 어반 스위트'를 공개. 탑승객이 차 안에서 휴식과 엔터테인먼트 이용 가능
우븐시티 (도요타)	도요타는 일본 후지산 주변에 70만m <sup>2</sup> 규모의 스마트시티인 '우븐시티'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홈, AI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실증한다는 계획 발표
AI:ME (아우디)	아우디는 자율주행 콘셉트카 'AI:ME'를 공개. 운전대 없이 카페나 사무실처럼 실내를 꾸몄으며, 탑승자의 시선 추적 기능을 통해 차량과 상호작용하며, VR(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가상 비행을 즐길 수 있음
엠비전S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카인 '엠비전S'를 공개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3. 모빌리티(교통) » 항공 모빌리티

CES 2020에서는 지상의 모빌리티 이외에도 하늘을 이동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현대차가 공개한 개인항공기 'S-A1', 벨의 에어택시용 항공기 '넥서스 4E'는 실물 크기의 모델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음

#### CES 2020에서 나타난 항공 모빌리티 트렌드

#####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 현대차는 CES 2020에서 차량은 전시하지 않고 실물크기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S-A1'을 선보임
- 현대차는 우버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개인항공기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며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현대차의 행보와 함께 헬리콥터 제조사 벨은 에어택시용 항공기를 전시하는 등 CES 2020에서는 항공 모빌리티가 새로운 주요 트렌드로 부상

#####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교통 허브의 중요성 대두

- 도심항공 모빌리티(UAM)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개인항공기로 갈아탈 수 있는 소형 공항 역할의 허브가 필요
- 현대차는 하늘의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지상의 이동수단이 허브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는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의 항공 모빌리티 관련 전시

제품 (제조사)	전시 내용
S-A1 (현대차, 우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대차는 우버와 협력해 개발한 개인항공기(PAV) 'S-A1' 콘셉트 모델을 실물 크기로 전시</li><li>S-A1은 전기 추진 방식의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5인승 개인용 비행체로,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만 향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li><li>최고 시속 290km로 100km를 비행 가능하며 5~7분 동안 배터리 충전 가능</li></ul>
넥서스 4E (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헬리콥터 제조사 벨은 우버와 함께 개발한 에어택시용 항공기 '넥서스 4E'를 전시</li></ul>
수소연료전지 드론 (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CES 2020에 처음 전시관을 마련한 두산은 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선보여 CES 2020 최고 혁신상을 수상</li></ul>
평행현실 서비스 (델타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델타항공은 한 화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멀티뷰 픽셀' 기술을 활용한 전광판 알림 서비스인 '평행현실(Parallel Reality)' 공개</li><li>승객의 위치를 인식해 맞춤화된 언어와 내용의 항공과 여행 정보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공항 전광판에서 수백 명의 고객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확인 가능</li></ul>

## 4. AI·로봇·데이터》ICT 기업의 AI 전략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IoT 로봇 기기인 '볼리'와 인공 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공개했으며, LG전자는 AI 발전 및 협력 전략을 밝힘. 구글, 아마존은 자사 AI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를 가정용 전자 기기에 이어 차량으로 확산하기 위해 차량 업체와의 협력과 제휴에 집중

### CES 2020에서 나타난 삼성전자, LG전자의 AI 전략

#### 삼성전자, 로봇 '볼리'와 인공 인간 '네온' 공개

-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지능형 로봇인 '볼리'를 공개. 볼리는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다니며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며, 가정 내의 여러 삼성 기기를 연결하고 컨트롤하는 IoT 기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
- 삼성전자 자회사 스타랩은 AI 기술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 아바타가 사람처럼 감정 표현을 하거나 말할 수 있는 인공 인간 프로젝트인 '네온'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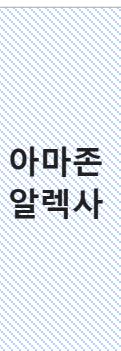
#### LG전자, AI 발전 및 협력 전략 공개

- LG전자는 ▲ 효율화(Efficiency) ▲ 개인화(Personalization) ▲ 추론(Reasoning) ▲ 탐구(Exploration)로 이어지는 AI의 4단계 발전 단계를 공개하고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 LG전자는 캐나다의 AI 소프트웨어 회사 엘레멘트AI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힘

### 구글과 아마존의 AI 플랫폼 경쟁



- 구글은 CES 2020에서 야외 부스를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TCL 등 자사 AI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기기를 진열
- 구글 어시스턴트가 웹페이지를 읽어주거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작동하는 등 다양한 활용사례도 소개
-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볼보 차량 2대를 전시하고 내비게이션, 집 조명 조정 등 활용 시연



- 아마존은 CES 2020에서 램보르기니, 전기차 업체 리비안 차종에 알렉사를 탑재하기로 발표하고, 아마존 알렉사를 탑재한 차량 3대를 전시하는 등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
- 아마존은 알렉사를 이용해 차 안에서도 집에서 가능한 모든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스마트홈 경험을 집에서 차량으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4. AI·로봇·데이터》로봇 관련 전시와 데이터 보안 이슈

CES 2020에서 선보인 로봇은 요리보조 셰프, 보행보조, 커피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임. 한편, 애플과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담당 임원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조

### CES 2020에서 전시된 로봇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등에서는 요리보조, 보행보조, 바리스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을 선보임**

전시품 (제조사)	전시 내용
삼성봇 셰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전시공간 '스마트 키친'에서 셰프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요리를 돋는 과정을 시연
클로이 (LG전자)	LG전자는 클로이 테이블 전시를 통해 국수를 삶고 설거지하거나 서빙하는 클로이 로봇을 선보임
협동로봇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가 선보인 협동로봇은 DJ와 함께 광고판을 이리저리 돌리는 속도감 넘치는 공연 시연. 협동로봇 바리스타는 관람객들에게 '로봇드립' 커피를 제공
마스캣 (엘리먼트 로보틱스)	중국 로봇 회사 엘리먼트 로보틱스는 실제 고양이처럼 행동하고 '앉아' 등 음성 명령 20개를 알아듣는 로봇 고양이 '마스캣(MarsCat)'을 공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글로벌 ICT 기업, 데이터 보안 강조

#### 애플, CES 2020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 참가

- 제인 호바스 애플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담당 이사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으며, 아이폰에서 촬영된 사진, 시리, 맵 데이터 정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됨을 강조
- 유럽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소비자에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안이 필요하며, IT기업도 이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밝힘

#### 페이스북, 새로운 보안기능 공개

- 페이스북은 CES 2020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개 범위 확인(Privacy Checkup)' 보안 기능을 공개
- 소비자 본인의 공유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친구 요청이 가능한 이용자를 확인 및 설정 가능하며, 비밀번호 강화 및 로그인 알림 설정도 도입

## 5. 헬스케어·푸드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제품

CES 2020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부상. CES 2020에 참가한 헬스케어 기업들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며 활발한 참여를 보였으며,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다수 참가해 혁신상을 수상

### CES 2020에서 나타난 헬스케어 트렌드

고령화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통제하에 건강 유지를 원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li> <li>CTA에 따르면 CES 2020에 참가한 헬스케어 부문 참가업체는 2019년보다 20% 이상 증가</li> <li>국내 병원장급 의료계 인사 30여명은 CES 2020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탐색</li> </ul>

다양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품이 돌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스타트업 참케어(초경량 혈압계), 엑소시스템즈(근력강화 웨어러블 기기), 올리브헬스케어(복부지방측정기) 등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CES 혁신상을 수상</li> <li>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우수 과제로 꼽힌 두피 케어 탈모 예방 솔루션 '비컨', 자외선 모니터링 관리 서비스 '울트라브이' 등도 소개됨</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에서 선보인 헬스케어 관련 전시

제품 (제조사)	전시 내용
하트와이즈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미국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심장 질환 재활 프로그램 '하트와이즈(HeartWise)'를 공개</li> <li>하트와이즈는 모바일기를 활용해 만성 심장 질환 환자의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전문 의료진의 적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헬스케어 서비스</li> </ul>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 젬스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웨어러블 로봇 '젬스'는 허리와 다리에 부착해 운동을 보조하거나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활용 가능하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 중</li> <li>또한 젬스를 착용하고 AR 헤드셋을 쓴 사용자가 개인 트레이너에게 맞춤형 피트니스를 받는 과정도 시연</li> </ul>
팬텀 메디컬 (바디프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펄스자기장 기술을 적용해 목디스크와 일자목, 거북목 등의 치료 기능을 갖춘 의료기기 안마의자를 공개</li> </ul>
H2-BP (참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스타트업 참케어는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혈압 정보를 확인 가능한 43g의 초경량 손목밴드형 혈압계 H2-BP를 공개해 CES 혁신상을 수상</li> </ul>

## 5. 헬스케어·푸드테크 » 푸드테크 관련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가정에서 다양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식물재배기를 전시해 주목받음. 요리보조 로봇과 피자 제조 로봇도 선보였으며, 대체육류 제조업체인 임파서블푸드에서 공개한 대체육을 이용한 요리는 관람객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음

### CES 2020에서 나타난 푸드테크 관련 트렌드

건강과 환경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배경으로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에서 수경재배로 채소를 재배하려는 수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식물재배기를 개발</li> <li>대체육 제조업체인 임파서블푸드는 자사의 식물성 대체육이 맛은 육류와 비슷하면서도 글루텐과 동물 호르몬, 항생제 등이 들어 있지 않아 더 건강하다고 주장함</li> </ul>	

푸드테크 전자제품과 푸드 기술이 신시장 형성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식물재배기는 새로운 가전 시장으로써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li> <li>영국 바클레이즈은행에 따르면 대체육 시장이 향후 10년 내 최대 1,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글로벌 대체육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됨</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CES 2020에서 선보인 푸드테크 관련 전시

제품 (제조사)	전시 내용
식물재배기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냉장고 형태의 식물재배기를 공개했으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적합한 씨앗 패키지를 고르면 LED를 통해 광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을 공급해 식물을 키우는 방식</li> </ul>
식물재배기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전자는 냉장고 크기의 식물재배기를 공개했으며, 온도 제어, 급수 제어 기술 등을 통해 복잡한 채소 재배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해, 식물재배기 내부의 선반에 일체형 씨앗 패키지를 넣고 문을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채소 재배가 이루어짐</li> </ul>
대체육류 (임파서블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대체육류 제조기업인 임파서블푸드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대체육류 돼지고기와 소시지를 공개했으며, 탄탄면, 미트볼 등 식물성 돼지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임</li> </ul>
음식 제조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는 요리를 보조하는 로봇팔 형태의 세프 로봇을 선보였고 미국 스타트업 피크닉은 1시간에 300판의 피자를 만드는 피자로봇을 공개</li> </ul>

## 6. 엔터테인먼트·콘텐츠 》 솟폼 동영상과 OTT 경쟁

CES 2020에서는 짧은 솟폼 동영상 제공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퀴비'와 NBC유니버설의 신규 OTT 서비스인 '피콕'이 공개되는 등 모바일과 스트리밍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 업계의 트렌드가 부각. 기존 대형 기업 중심의 경쟁 구도에 신규 업체와 신규 서비스의 참전으로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

### 숏폼 동영상 플랫폼 퀴비 소개

#### 숏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퀴비' 공개

- 퀴비 CEO(HP 전 CEO) 맥 휘트먼은 CES 2020 기조연설에서 10분 이내의 짧은(숏폼) 동영상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퀴비(Quibi)'를 발표
- '퀴비'는 매일 새로운 솟폼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서비스 첫 해 8,000여개 이상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광고 기반 월 4.99달러, 광고 없는 서비스는 월 7.99달러에 제공될 예정

#### 퀴비의 가능성과 잠재력

- 퀴비는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넷플릭스의 틱톡(15초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버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
- 퀴비는 솟폼 동영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즈니, 폭스, NBC 등 기존 미디어 기업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NBC유니버설, 새로운 OTT 서비스 공개

신규 OTT  
서비스  
'피콕' 공개

- 미국 미디어 기업인 NBC유니버설은 2020년 4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Peacock)'을 광고 기반, 구독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피콕은 NBC유니버설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2021년 말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끝나는 인기 드라마 '디 오피스(The Office)'도 독점으로 제공한다는 계획

NBC  
유니버설  
OTT  
시장  
가세로  
인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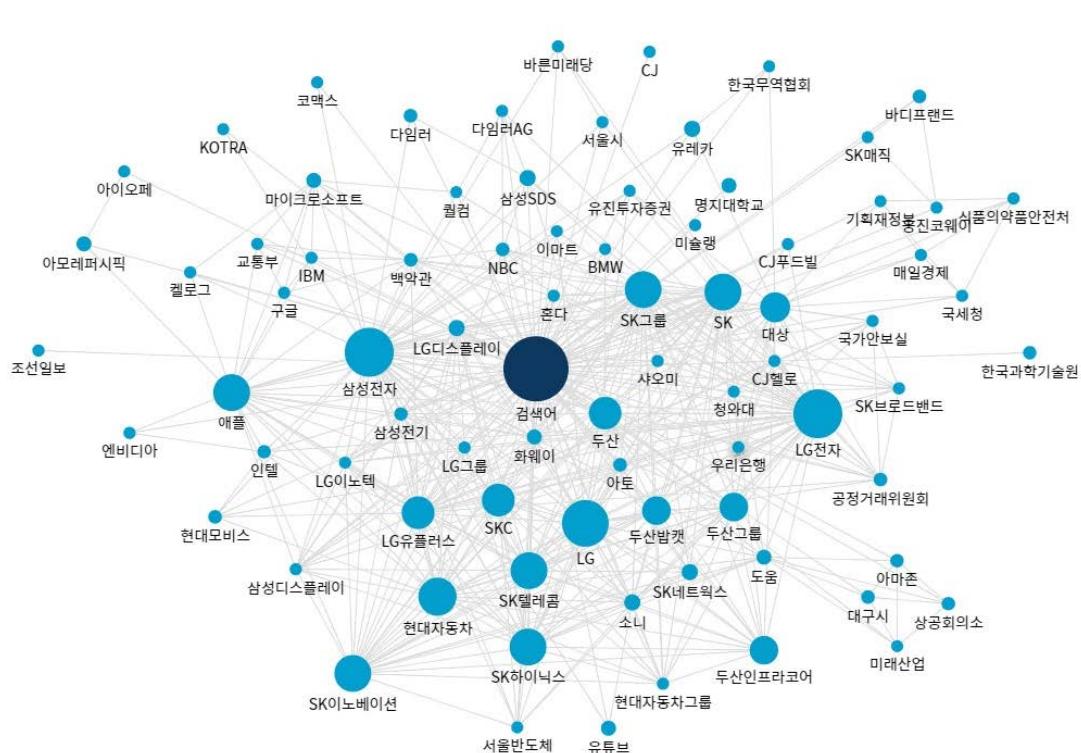
- NBC유니버설은 NBC 방송과 경제매체 CNBC, 영화 스튜디오 유니버설 픽처스·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 뉴스채널 MSNBC 등을 보유해 방대한 영상 콘텐츠 확보
- 넷플릭스, 헐루, 아마존 프라임이 경쟁하던 글로벌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등 새로운 서비스가 뛰어든 상황에서 NBC 유니버설의 가세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참고] 데이터로 본 CES 2020 ─ 주요 언급 기관·기업

CES 2020 개최 직전 시기에 보도된 언론 기사 분석(1월 2일) 결과, 언론에서 언급된 기업 중 국내 기업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CJ, 두산 등이 있었으며, 해외 기업은 애플, 구글, 아마존, IBM, BMW 등이 있음

## CES 2020 관련 주요 언급 기관·기업 연계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BIG KINDS 활용, 접속일자: 2020년 1월 2일

## CES 2020 관련 주요 기관·기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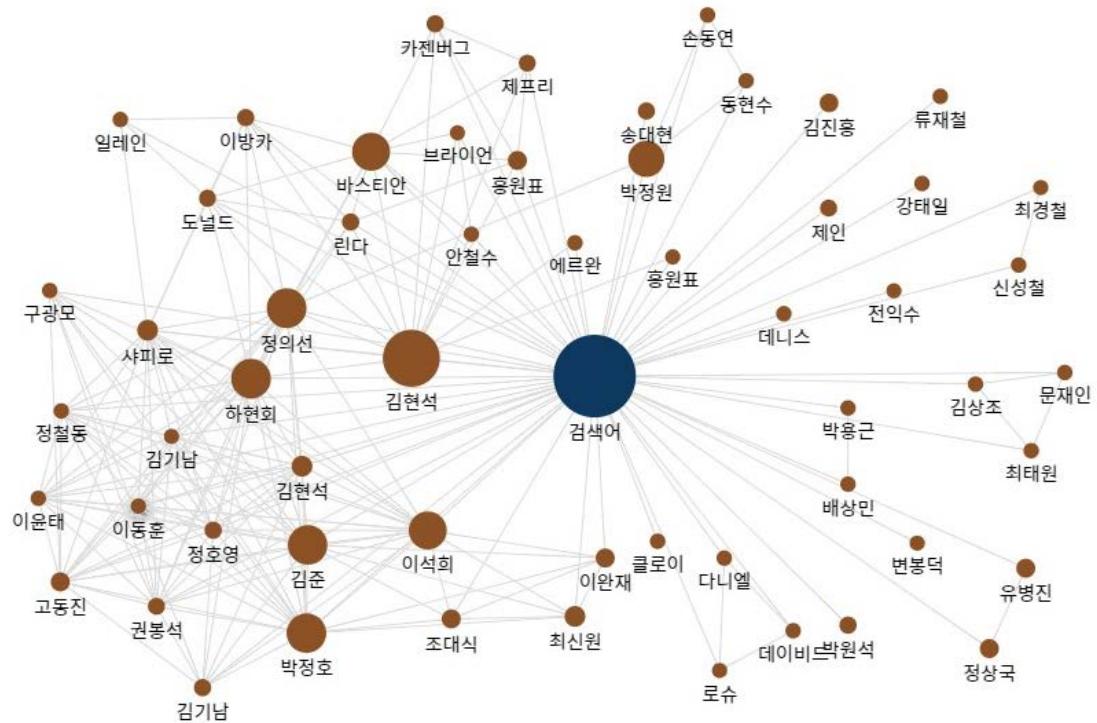
	삼성전자	구글
	삼성전기	아마존
	삼성디스플레이	IBM
	삼성SDS	マイクロソフト
LG	LG전자	인텔
	LG디스플레이	퀄컴
	LG유플러스	엔비디아
	LG이노텍	BMW
SK	SK텔레콤	소니
	SK하이닉스	유튜브
	SK이노베이션	다임러
	SKC	혼다
	SK네트웍스	화웨이
	SK브로드밴드	샤오미
	SK매직	NBC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애플
	현대모비스	
CJ	CJ푸드빌	
	CJ헬로비전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서울반도체		
대상		
바디프랜드		
웅진코웨이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참고] 데이터로 본 CES 2020 » 주요 언급 인물

CES 2020 관련 국내 언론보도에 언급된 인물로는 Keynote Speech를 맡은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 김현석 사장을 포함해 국내 기업 회장, 사장이 다수 포함됨

### CES 2020 관련 주요 언급 인물 연계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BIG KINDS 활용, 접속일자: 2020년 1월 2일

### CES 2020 관련 주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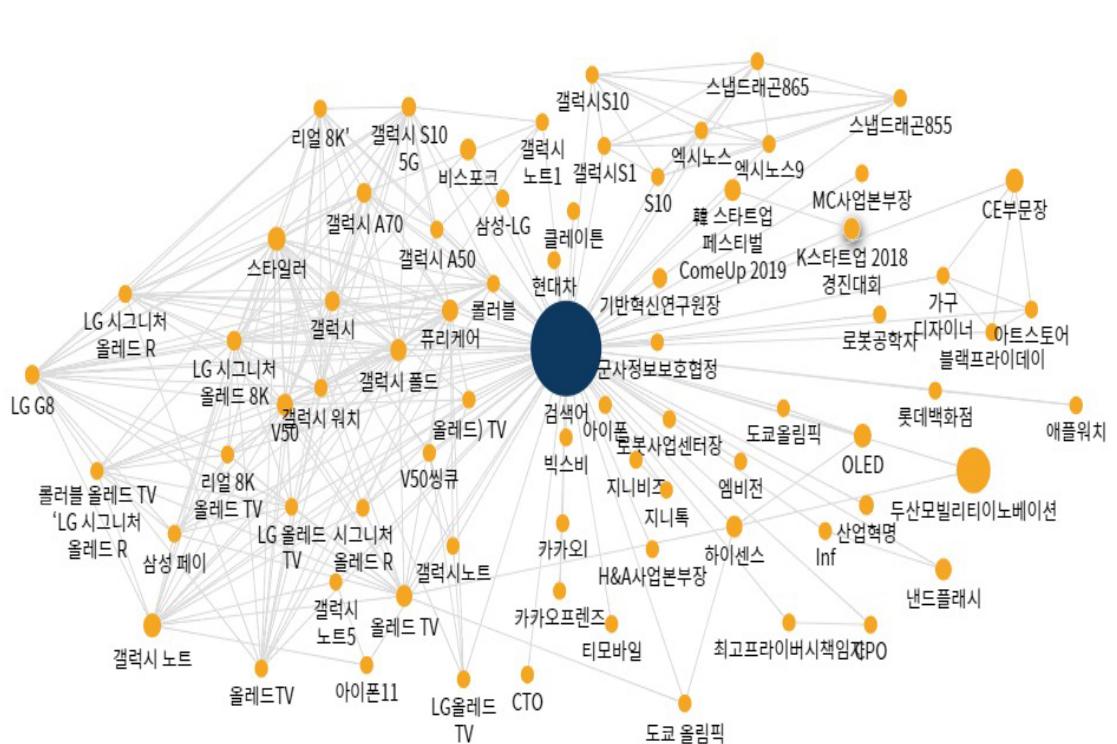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에드 바스티안	텔타항공 최고경영자(CEO)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게리 샤피로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
홍원표	삼성SDS 대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
권봉석	LG전자 사장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 [참고] 데이터로 본 CES 2020 ─ 주요 키워드

CES 2020 관련 국내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활가전, 웨어러블, 인공지능,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포함됨

## CES 2020 관련 주요 언급 키워드 연계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BIG KINDS 활용. 접속일자: 2020년 1월 2일

## CES 2020 관련 주요 키워드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갤럭시 S10/S10 5G
	갤럭시 노트/A70
	V50/V50씽큐
	LG G8
디스플레이	아이폰11
	리얼 8K
	롤러블
	OLED TV
반도체	LG 시그니처 OLED R
	스냅드래곤 865/855
	엑시노스/엑시노스 9
생활가전	비스포크
	스타일러
	퓨리케어
웨어러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인공지능	빅스비
	카카오i
	지니톡/지니비즈
결제	삼성페이

# Contents

	Page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2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7
<b>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b>	<b>25</b>
IV. 시사점	80
V. Appendix	82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 TV 분야 – 삼성전자 (1/2)

삼성전자의 '더 월(The Wall)'은 주거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삼성전자는 '삼성 퍼스트 룩 2020' 행사에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힘

### 삼성전자 –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The Wal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더 월'로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임

- 초소형 반도체를 이어 붙여 크기와 모양의 제약이 없는 마이크로 LED TV '더 월'은 기존 75·146·219·292인치에서 75·88·93·110·150·292인치로 라인업을 확대
- '더 월'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모듈러 기반 스크린으로 뛰어난 화질은 물론 베젤, 사이즈,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는 특징을 지님
-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에 들어갈 예정

#### 마이크로 LED는 기존 대비 약 15배 작아진 초소형 LED 소자가 촘촘하게 배열돼 세밀한 화질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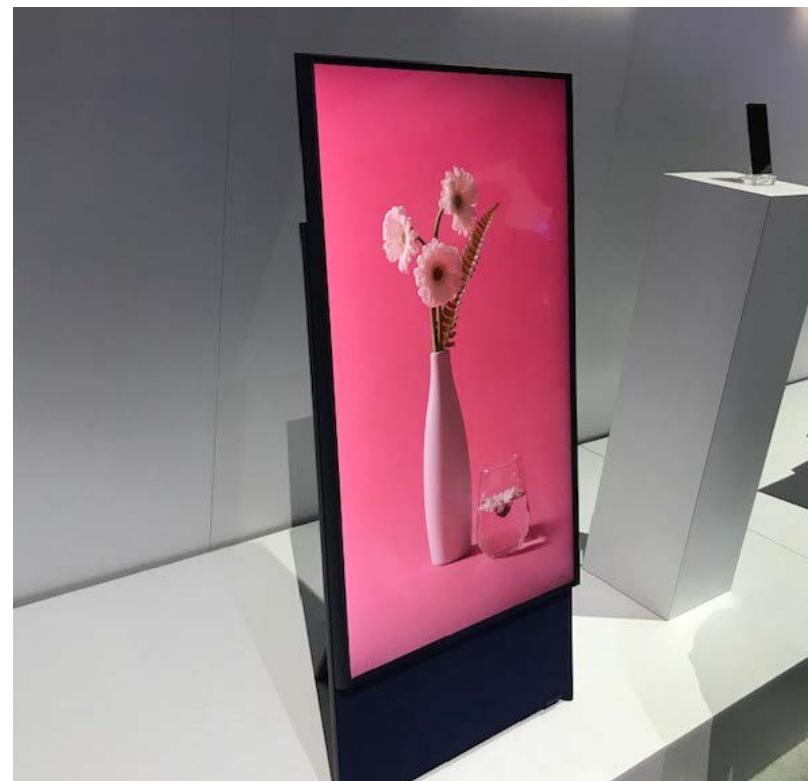
-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력 제품을 QLED와 마이크로 LED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고 강조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 TV 분야 – 삼성전자 (2/2)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TV에서는 1,000여점의 미술 작품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이 가능. 세로형 TV '더 세로'는 꽉 찬 화면으로 세로형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SNS나 쇼핑 사이트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의 댓글과 함께 보는 경우 편리

**삼성전자 – 라이프스타일 TV로 '더 프레임(The Frame)'과 '더 세로(The Sero)'를 전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 TV 분야 – LG전자 (1/2)

LG전자는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OLED TV R'을 전시했으며, 기존의 롤업 방식뿐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펼쳐주는 롤다운 방식의 롤러블 OLED TV도 선보임

### LG전자 -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OLED TV R'



#### LG전자의 롤러블 TV는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음

- 세계 최초로 출시되며 아직 동종 업계에서 유사 제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
-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1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2020년 3분기 내에 롤러블 OLED TV를 출시하겠다고 언급

#### LG전자는 8K TV 라인업을 확대하고, TV에 최신 AI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를 탑재

- LG전자는 초고해상도 TV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의 '리얼 8K' TV 신제품을 선보임
- 88형·77형 LG 시그니처 OLED 8K뿐만 아니라 8K LCD TV인 75형 LG 나노셀 8K도 전시
- 8K TV 신제품에 AI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를 탑재해 한 차원 높아진 성능을 보여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 TV 분야 – LG전자 (2/2)

중앙 전시관(Central Hall) 입구에는 OLED 사이니지 200여 장을 이어 붙여 관람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물결'을 연출. LG 전시관 입구에는 롤러블 OLED TV 20여 대를 설치해 '천상천하'를 주제로 한 OLED 세상을 표현

### LG전자 – '새로운 물결'(좌)과 '천상천하'(우)를 주제로한 LG전자 전시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 모빌리티 분야 – 현대모비스 (1/2)

현대모비스 미래차 분야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자율주행 기반의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 '엠비전S(M. Vision S)'를 공개

### 현대모비스 - 자율주행 콘셉트 모델 '엠비전S(M. Vision S)'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현대모비스

**'엠비전S'는 작년 CES에서 선보인 엠비전보다  
진화한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카**

- '엠비전S'는 CES 2019에서 선보였던 '엠비전'보다 진화한 버전으로 현대모비스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완전자율주행 콘셉트 차량
- '엠비전S'의 S는 공유(Sharing) 가능한 모빌리티를 뜻하며 현대모비스의 다양한 기술 비전이 이 콘셉트 차량에 융합되었음을 의미
- '엠비전S'에는 카메라, 레이더 등 자율주행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가상공간 터치, 3D 리어램프 등 현대모비스가 그간 축적해 온 미래차 핵심 기술이 응축되어 있음

**현대모비스의 핵심 기술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

-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Autonomous), 커넥티비티 (Connectivity), 전동화 (Electrification)의 첫 글자를 따 'ACE' of Mobility라는 슬로건을 내세움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 모빌리티 분야 – 현대모비스 (2/2)

현대모비스는 전시장에 다양한 라이트와 램프, 카메라로 보행자와 인사를 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엠비전S'를 전시. '엠비전S'의 전방 카메라가 관람객들의 모습을 감지하고 이미지화해 전시장의 대형 미디어 월에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동차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을 보임

### 현대모비스 - 자율주행 콘셉트 모델 '엠비전S(M. Vision S)'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 모빌리티 분야 – BMW (1/2)

BMW는 CES 2020에서 별도의 야외 부스를 마련하고 내부 공간을 호텔 스위트룸처럼 조성한 'i3 어반 스위트(Urban Suite)' 콘셉트카를 공개. BMW는 운전자와 탑승객 각각의 요구에 맞춰진 이동성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

### BMW – 내부 공간을 호텔 스위트룸처럼 조성한 'i3 어반 스위트(Urban Suite)'



'i3 어반 스위트'는 BMW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의 콘셉트를 보여주는 모델

- 'i3 어반 스위트'는 매력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운전석과 대시보드를 제외한 기존 BMW i3 모델의 모든 부분을 변경
- 차량 실내를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구성

'i3 어반 스위트'는 미래의 고급스러운 이동성은  
차량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 휴식용 발판이 장착된 크고 안락한 카시트,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크린, 그리고 개인용 사운드 존(Sound Zone)을 갖추고 있음
- 탑승객은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으며, 편안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BMW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 모빌리티 분야 – BMW (2/2)

CES를 위해 다수의 일반 BMW i3 모델이 '어반 스위트' 모델로 개조되어 독일 뮌헨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운송됨. CES 2020 행사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i3 어반 스위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함

### BMW – 내부 공간을 호텔 스위트룸처럼 조성한 'i3 어반 스위트(Urban Su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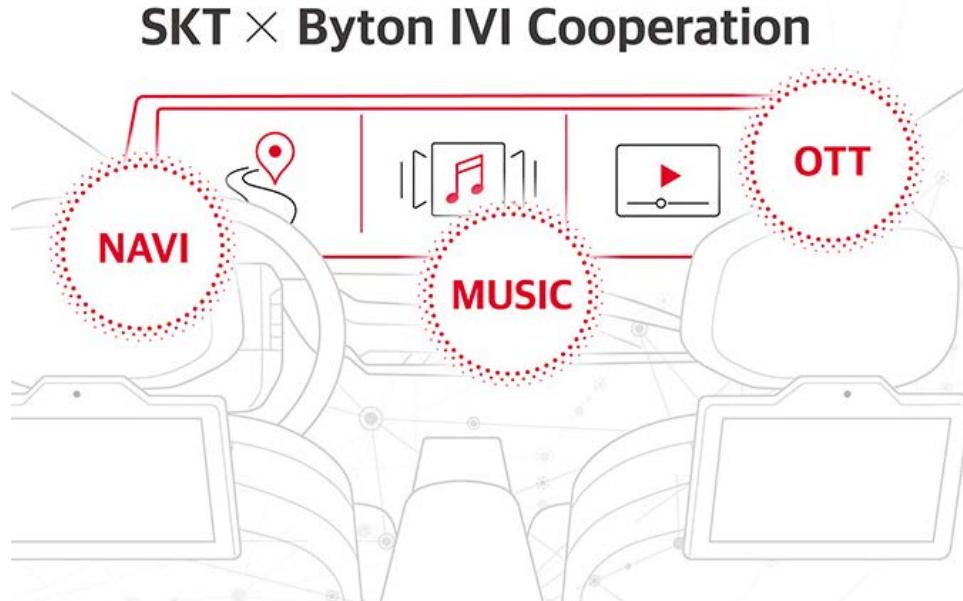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BMW(좌), 삼정KPMG 경제연구원(우)

### 3. 차량용 시스템 분야 – SK텔레콤 (1/2)

SK텔레콤은 차량 탑승자를 위한 각종 주행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합 제공하는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을 공개했으며, 글로벌 전기차 업체 바이톤과 제휴를 체결해 한국에 출시할 바이톤 전기차 모델에 통합 IVI를 적용한다는 계획

#### SK텔레콤,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SK텔레콤은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In-Vehicle-Infotainment)을 공개

-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과 음원 서비스인 '플로',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차량에 기본 탑재하는 '통합 IVI' 시스템을 선보임
- 향후 5G를 적용해 차량 내에서 초고화질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를 끊김없이 스트리밍으로 즐기고, HD맵 등 각종 기술과 서비스 활용 전망

#### SK텔레콤은 IVI를 글로벌 전기차 기업 바이톤이 한국에 출시할 모델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

- SK텔레콤은 CES 2020 현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 '바이톤'이 국내에 출시할 전기차를 대상으로 양사가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제휴 체결
- SK텔레콤은 '통합 IVI' 서비스가 48인치 초대형 곡선형 터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 환경을 갖춘 바이톤 차량과 만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SK텔레콤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3. 차량용 시스템 분야 – SK텔레콤 (2/2)

SK텔레콤은 글로벌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와 양사의 핵심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시제품을 공개. 이 제품은 자율주행, 플라잉 택시 등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보안 감시, 재난 구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 상용화 예정

### SK텔레콤,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SK텔레콤

#### SKT, PSSI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용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공개

- SK텔레콤은 글로벌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PSSI)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시제품을 공개
- 이 제품은 SK텔레콤의 단일 광자 라이다 송수신 기술과 PSSI의 2D 초소형 정밀기계 스캐닝 기술을 결합해 기존 대비 해상도와 인식률을 대폭 향상

#### 자율주행, 교통 관제 등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기대

- 라이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물론 미래 교통 수단으로 각광받는 플라잉 택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 필수적인 센서로 자리매김
-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고 이를 3D 영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

## 4. 항공 모빌리티 분야 – 현대자동차 (1/2)

현대자동차는 CES 2020에서 우버(Ube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개. 현대자동차는 우버와 협력해 만든 도심항공 모빌리티 콘셉트 'S-A1'을 선보였으며, 이는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 가능한 모델

### 현대자동차 – 우버(Uber)와 협력해 만든 도심항공 모빌리티 콘셉트 'S-A1'



#### 현대자동차는 CES 2020에서 자사가 준비 중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

- 현대차가 밝힌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핵심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허브, 모빌리티 환승 거점) 간의 긴밀한 연결성

#### 현대자동차는 우버 엘리베이트(Uber Elevate)와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 'S-A1'은 날개 15m, 전장 10.7m로, 조종사 포함 총 5명 탑승이 가능.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음
- 최고 비행 속력은 290km/h에 달하고, 이착륙 장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5분여 동안 재비행을 위한 고속 배터리 충전이 가능
- 현대자동차는 개인용 비행체(PAV)를 포함한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2028년경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힘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4. 항공 모빌리티 분야 – 현대자동차 (2/2)

현대자동차는 비행체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공유 플랫폼을 제공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현대자동차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플랫폼 기술을 결합되면 수년 내 항공택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도약을 이룰 것으로 예상

### 현대자동차 – 우버(Uber)와 협력해 만든 도심항공 모빌리티 콘셉트 'S-A1'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4. 항공 모빌리티 분야 – Bell (1/2)

미국의 헬리콥터 제조 기업인 벨(Bell)은 활주로가 필요 없이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공중에 뜰 수 있는 수직이착륙기(eVTOL) 형태의 항공택시 '벨 넥서스(Bell Nexus) 4E'를 선보임

### Bell – 항공택시 '벨 넥서스(Bell Nexus) 4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벨 넥서스 4E'는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택시

-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만, 자동 비행 기술이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자율비행 택시로 운행할 예정
- 기체의 무게는 272kg이며 조종사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음
- 자체적으로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버와도 함께 비행 택시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2025년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함

CES 관람객들에게 항공택시 내부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착륙 원리를 설명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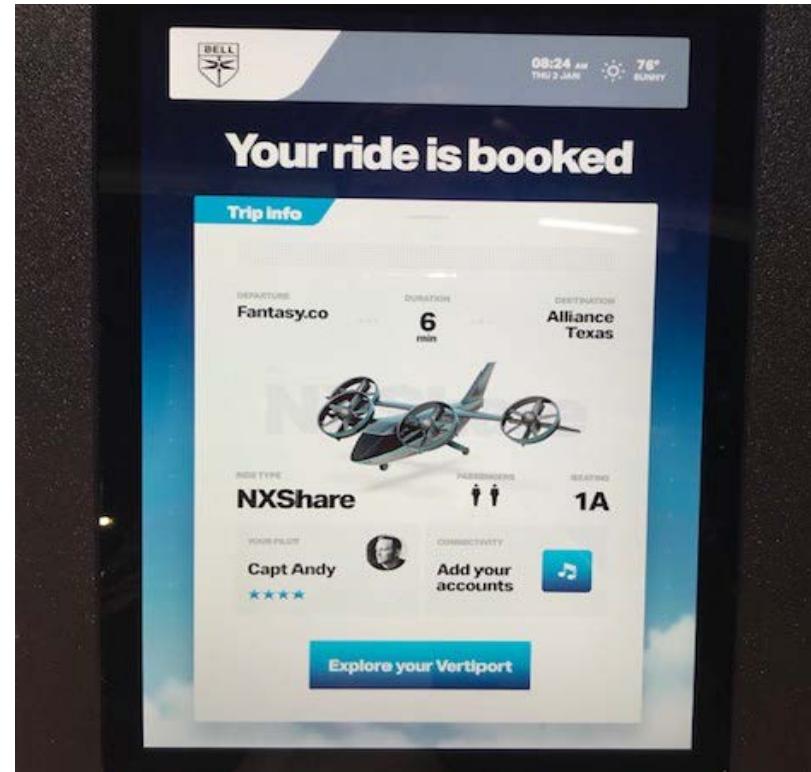
- 천장에는 무드를 바꿀 수 있는 LED 전광판을 설치
- 로터 기반의 비행체 제작 노하우가 풍부한 벨은 비행과 이착륙 동작을 수행할 때 필요에 따라 로터가 위아래로 꺾이는 기술을 시연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4. 항공 모빌리티 분야 – Bell (2/2)

벨은 실물 크기의 비행택시와 함께 모형 비행 택시도 전시해 도심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빌딩에 착륙하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보여줌. 스마트폰으로 공유차량을 부르듯 태블릿을 통해 항공택시를 손쉽게 예약하고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

### Bell – 항공택시 '벨 넥서스(Bell Nexus) 4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5. 항공 서비스 분야 – Delta (1/2)

미국의 델타(Delta) 항공은 CES 2020에서 ‘평행 현실(Parallel Reality)’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디지털 전광판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선보임

### Delta – ‘평행 현실(Parallel Reality)’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승객 맞춤형 스크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Delta

‘승객 맞춤형 스크린’으로 단일 안내판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

- ‘평행 현실’ 기술은 ‘멀티뷰 픽셀(Multi-view pixels)’ 기술을 활용해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의미
- 델타항공은 미스어플라이드 사이언시스(Misapplied Sciences)와 협력하여 평행현실 기술을 개발
- 델타항공 이용객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대형 디지털 전광판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여행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음
- 델타항공 이용객은 평행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크린에서 탑승 위치를 확인하고 가까운 델타 스카이 클럽 라운지를 찾을 수 있음

델타는 미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에서 ‘평행 현실’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

-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고객과 직원의 피드백은 추후 서비스 개발에 반영될 예정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5. 항공 서비스 분야 – Delta (2/2)

그 외에도 델타항공은 직원들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미국의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사코스(Sarcos)의 외골격 로봇 '가디언 XO'는 델타의 업무 현장에 활용될 예정

### Delta – 로봇 전문 기업인 사코스(Sarcos)의 웨어러블 로봇 '가디언 XO'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Delta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6. 드론 분야 –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공개해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북미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

###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수소연료전지 드론 공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공개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
- 이 제품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재난 구조나 화물 배송, 공업용 라인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CES 2020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함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와 AI 및 IoT를 활용한 드론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동판매를 추진할 계획
-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에 MS의 최신기술을 접목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함으로써 양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포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두산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7. AI 분야 – 삼성전자 (1/2)

삼성전자는 그간 극비리에 추진해온 인공 인간(Artificial Human) 프로젝트 '네온(Neon)'을 CES 2020에서 공개. 가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사람들과 자유롭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20여 가지의 인공 인간을 전시

### 삼성전자 – 삼성리서치 산하 스타랩(Star Labs)의 인공 인간 '네온(Neon)'



실제 사람처럼 생긴 네온은 수백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음

- 영화 'Her'에는 인공지능 여비서가 목소리로만 등장하지만, '네온'은 화면으로 보이며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짐
- 네온은 AI 비서, 인터넷상의 인터페이스, 뮤직 플레이어 등이 아니며 '우리의 친구, 동반자'라고 강조
-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도, 무릎을 구부려 스트레칭을 하거나 양팔을 벌려 체조를 하는 것까지 실제 사람의 모습과 매우 흡사

네온은 삼성전자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산하 연구소 스타랩(Star Labs)에서 개발

- 스타랩 CEO 겸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전무인 프라나브 미스트리(Pranav Mistry)는 MIT미디어랩을 거쳐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2014년 당시 33살의 나이에 상무로 승진한 '천재과학자'로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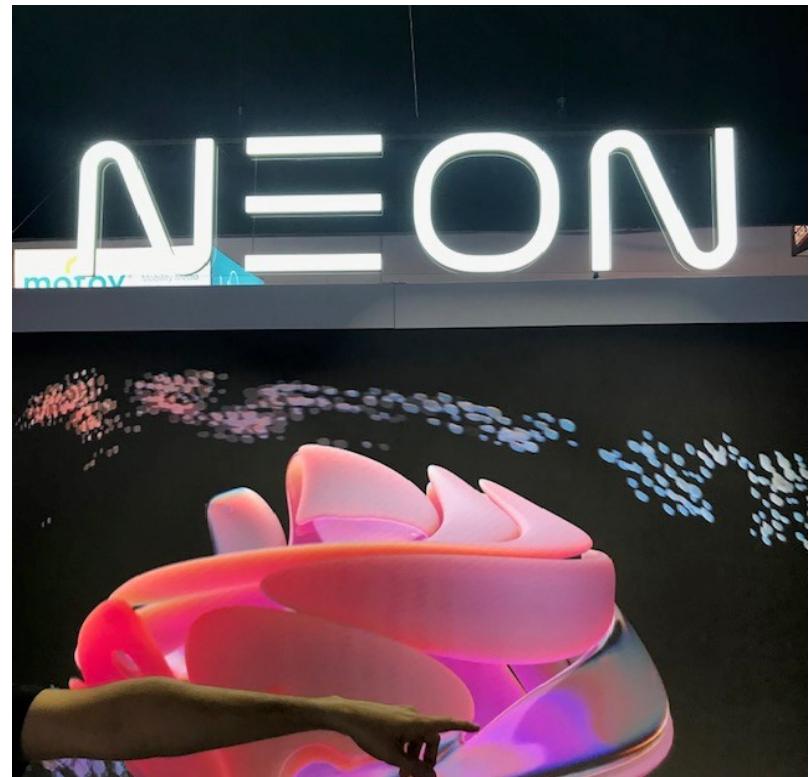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7. AI 분야 – 삼성전자 (2/2)

'네온' 개발 팀은 3가지 R(Reality, Realtime, Responsive), 즉 사실감을 가진 가운데 즉각적이고,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둠. 향후 '네온'은 상담원, 강사, 트레이너, 서비스맨 등 다양하게 활약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삼성리서치 산하 스타랩(Star Labs)의 인공 인간 '네온(Neon)'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7. AI 분야 – Google

구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외 부스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TCL 등 제조사 기기를 진열하는 한편 '구글 어시스턴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 구글은 여러 가전업체 부스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구글과의 연동을 강조

**Google – 지배적인 AI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단독 야외 전시장에 다양한 가전제품을 전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7. AI 분야 – Amazon

아마존은 전시장을 '재택근무자(Work from home employee)', '엔터테인먼트 열광자(Entertainment enthusiast)', '홈 쉐프(Home chef)', '바쁜 부모(Busy parent)' 4개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에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시

### 아마존 – 아마존의 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7. AI 분야 – 솔트룩스

국내 AI 기업인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통합 솔루션(United Solutions of AI)'이라는 주제로 AI가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실제로 응용되는지를 다양한 AI 솔루션을 통해 선보임

### 솔트룩스 – '인공지능 통합 솔루션'이란 주제로 최신 AI 솔루션을 공개



솔트룩스는 최신 AI 솔루션을 선보이며 자사의 AI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CES에 참가

- 솔트룩스는 지식 기반 심층 대화 시스템 '톡봇', 추론기능 및 데이터 변환도구를 제공하는 '지식 그래프', 심층 질의응답 엔진 '심층 QA'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공개
- 솔트룩스는 6개 부스 규모의 단독부스를 설치하고 AI 기술을 통해 변화될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모습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전시 공간을 마련

솔트룩스는 국내 대표 AI 기업으로 국내 인공지능 기업 중 194건의 기술 특허(PCT 포함)를 보유

-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고객센터 구축과 챗봇 고객응대 서비스를 포함한 인공지능 플랫폼 공급 사업을 진행
-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40개 국가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16개 국어를 동시 지원하는 글로벌 AI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8. 로봇 분야 – 삼성전자 (1/2)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소비자가전 부문장)는 기조연설에서 첨단 하드웨어와 AI 기술이 결합된 개인 맞춤형 케어를 강조하면서 지능형 반려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를 최초로 공개

### 삼성전자 – 지능형 반려 로봇 '볼리(Ballie)'



#### '볼리'는 주인을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하는 지능형 반려 로봇

- 볼리는 공 모양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 다니며, 사용자 명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등 주요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다양한 흄 케어를 수행할 수 있음
- '온 디 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돼 있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 시큐리티 로봇이나 피트니스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음

####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볼리'는 인간 중심 혁신을 추구하는 삼성전자의 연구 방향성을 보여줌

- 삼성전자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원하는 바, '볼리'에게 엄격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성전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8. 로봇 분야 – 삼성전자 (2/2)

삼성전자는 CES 현장에서 볼리를 시연했으며, 볼리가 아이들과 반려 동물의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가족사진과 같은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카메라가 되는 등 다양한 홈 케어 수행을 강조

### 삼성전자 – 지능형 반려 로봇 ‘볼리(Balli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8. 로봇 분야 – 한컴그룹 (1/2)

올해로 세 번째 CES에 참가한 한컴그룹은 한글과컴퓨터, 한컴MDS, 한컴로보틱스, 한컴위드, 한컴모빌리티, 아큐플라이AI 등 여러 그룹사들의 블록체인, AI, 로봇, 스마트시티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임

### 한컴그룹 – 인공지능 기술 적용한 로봇·통번역기·오피스SW 등 인공지능 제품군 전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한컴그룹

한컴그룹은 홈서비스 로봇 '토키'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안내 로봇 '엘리젠'을 선보임

- **토키(Toki):** AI 기반 외국어 학습 기능을 갖춘 토키는 외국어, 코딩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탑재 가능
- **엘리젠(Elligen):** 전면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음성은 물론, 문자와 영상까지 활용해 정보를 전달. 자율 주행 기능도 탑재해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항처럼 도우미가 필요한 지역에 적합

한컴그룹은 오피스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 한컴그룹이 선보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차세대 기술
- 한컴그룹은 보유한 블록체인, AI, 로봇 등 첨단 기술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8. 로봇 분야 – 한컴그룹 (2/2)

그 외에도 한컴그룹은 생애 전체를 블록체인화 하는 라이프 블록체인을 제안. 한컴그룹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 금의 진위 여부를 바탕으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금 거래 플랫폼을 개발

### 한컴그룹 – 홈서비스 로봇 ‘토키(Toki)’와 블록체인 기반 금 거래 플랫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9. 스마트홈 분야 – Flic (1/2)

2013년도에 설립한 스웨덴 스타트업 플릭(Flic)은 가정 내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스마트홈 환경을 구현하는 IoT 버튼 '플릭(Flic)'을 전시

### Flic – 버튼 하나로 손쉽게 스마트홈 환경을 만드는 IoT 기기 '플릭(Flic)2'



Source: Fli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플릭2' 버튼에 특정 기능을 지정하고 버튼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음

- 버튼을 눌러서 원격으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의 알람을 끄거나, 노래를 틀거나, 불륨을 줄이거나, 불을 켜는 등 다양하게 버튼을 사용할 수 있음
- '플릭2' 기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음

아마존이나 자체 웹사이트에서 '플릭2'를 구매할 수 있음

- 아마존이나 자체 웹사이트에서 버튼 하나에 30달러에 구매 가능. 집이 넓은 경우 별도의 허브와 3개의 '플릭'을 160달러에 구매할 수 있음
- 이전 버전보다 디자인을 강화하였고, 버튼에 들어가는 배터리 크기를 늘려 버튼 하나당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 교체도 가능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9. 스마트홈 분야 – Flic (2/2)

버튼별로 용도를 설정하고 침대 옆이나 화장실, 부엌 등 필요한 공간에 부착해 사용 가능. 플릭은 피자헛과 제휴를 맺고 집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에 설정한 피자가 배달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

### Flic – 버튼 하나로 손쉽게 스마트홈 환경을 만드는 IoT 기기 ‘플릭(Flic)2’



Source: Fli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9. 스마트홈 분야 – 카카오 IX (1/2)

카카오 IX의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는 처음으로 CES에 참가하여 IoT 홈케어 디바이스인 '카카오프렌즈 홈킷' 7종을 선보였으며 카카오프렌즈를 알아보는 국내외 팬으로부터 관심을 끔

### 카카오 IX – IoT 홈케어 디바이스 '카카오프렌즈 홈킷'



#### 카카오프렌즈 홈킷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 세트

- '카카오프렌즈 홈킷' 7종은 스마트 체중계, 램프, 공기청정기, 가습기, 알람, 센서, 체온계로 구성
-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정보 기록 활용이 가능하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애플리케이션상에 구현됨
-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제품과 UI, UX에 적용했으며 카카오프렌즈 특유의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

#### 앞으로 홈킷 시리즈와 함께 전 세계에 K캐릭터를 알려 나가는 집중할 계획

- 카카오IX의 스마트 체중계는 2020년 1월 중으로 해외 시장에 먼저 출시될 예정이며 5월에는 국내에서도 스마트 체중계가 공식 출시될 예정
- 스마트 램프, 스마트 공기청정기, 스마트 가습기 등 3종이 글로벌 출시될 예정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9. 스마트홈 분야 – 카카오 IX (2/2)

카카오 IX는 이번 행사에서 7종의 홈킷 시리즈를 전시하면서 4종(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램프, 스마트 공기청정기, 스마트 가습기)은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함

### 카카오 IX – IoT 홈케어 디바이스 '카카오프렌즈 홈킷'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0. 스마트 키친 분야 – CookingPal (1/2)

홍콩 스타트업인 쿠킹팔(CookingPal)은 2020년 말 판매 예정인 스마트 주방기기인 '줄리아(Julia)'를 공개했으며 CES 2020에서 이를 활용한 쿠킹 시연을 진행

### CookingPal – 스마트 주방기기 '줄리아(Julia)'



Source: CookingPal,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무게 측정, 온도 설정, 타이머 설정 등 모든 기능을  
별도 패드를 통해 조정 가능

- 아마존 알렉사가 패드에 빌트인되어 있어 음성인식을 통해 요리할 수 있음
- 주방기기에 센서가 있어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알려줌
- 볼에 담는 순간 무게가 측정되어 별도의 계량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2020년 말 아마존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는 미국에 런칭할 계획

- 세트의 구성은 믹서기(1개), 볼(1개), 패드(1개), 모터기기(1개)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 예정
- 전체 세트 구성 가격은 약 1,000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계·제작부터 디자인까지 함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0. 스마트 키친 분야 – CookingPal (2/2)

주방기기를 제어하는 패드에는 ‘줄리아’로 요리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요리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손쉽게 요리를 할 수 있음. 블루투스로 연결해 iOS,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이 가능

### CookingPal – 스마트 주방기기 ‘줄리아(Julia)’



Source: CookingPal,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11. 스마트 리테일 분야 – Vayyar (1/2)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바야(Vayyar)는 RF(Radio Frequency)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타 사의 솔루션 대비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Vayyar – RF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



바야의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은 RF 이미지 센서를 통해 매장 선반 내 움직임을 감지

- 바야의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은 선반 층마다 RF 이미지 센서를 달아 물품의 움직임을 감지
- 선반에 있는 음료를 꺼내면 RF 이미지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재고가 하나 줄었다고 화면에 뜸

바야의 목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만드는 것

- 선반에 특정 물품의 재고가 적어지면, 직원에게 알람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이룰 수 있음
- 아직 상용화 전이며, 현재 여러 기업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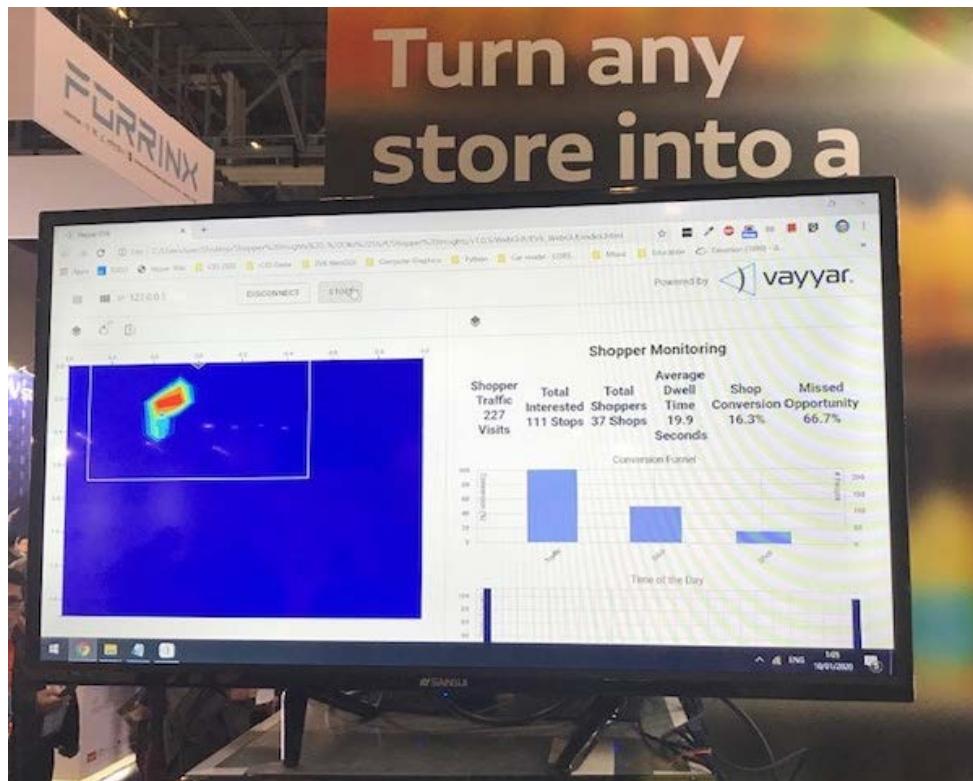
Source: Vayyar,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1. 스마트 리테일 분야 – Vayyar (2/2)

그 외에도 바야는 RF 이미지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기기 앞에 서면 사람의 신장(키,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음

### Vayyar – RF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



Source: Vayyar,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12. 푸드테크 분야 – Impossible (1/2)

미국의 푸드테크 기업인 임파서블(Impossible)은 CES 2019에서 '임파서블 비프(Impossible Beef)'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식물성 돼지고기 '임파서블 포크(Impossible Pork)'를 공개. 맛있으며,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Impossible – 100% 식물로 만든 돼지고기 패티 '임파서블 포크(Impossible Pork)'



#### 임파서블은 CES 2020에서 처음으로 '임파서블 포크(Impossible Pork)'를 공개

- 임파서블은 미국에서 2011년 설립됐으며, 연구개발 끝에 2016년 처음으로 대체 식품을 공개
- 작년 CES에서는 '임파서블 비프(Impossible Beef)'를 공개한 후 미디어로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음
- '임파서블 포크'는 돼지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콩으로 만들어졌으며, 맛있으며, 영양가 있으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임파서블의 목표는 육류를 식품 생태계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

- 현재 임파서블은 7,000여 개의 레스토랑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B2B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음
- 조만간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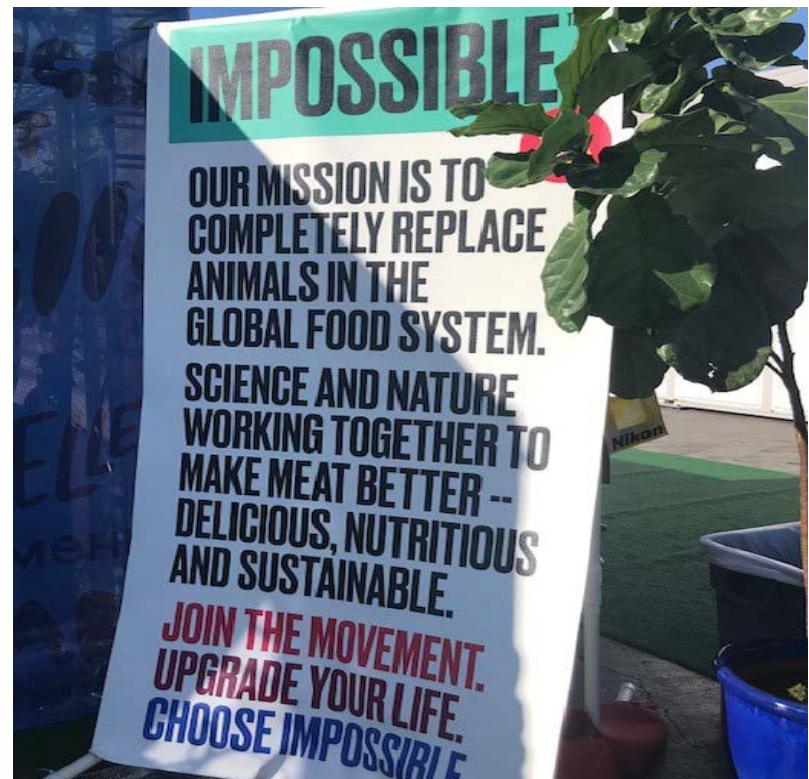
Source: Impossibl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2. 푸드테크 분야 – Impossible (2/2)

임파서블은 컨벤션 센터 야외에 부스를 설치하고 '임파서블 포크' 패티를 넣은 반미 샌드위치를 시식할 수 있도록 함. 돼지고기 패티의 맛과 식감을 잘 살렸으며, 으깬 고기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맛이 난다는 평을 받음

### Impossible – 100% 식물로 만든 돼지고기 패티 '임파서블 포크(Impossible Pork)'



Source: Impossibl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13. 뷰티테크 분야 – 아모레퍼시픽

국내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CES 테크 웨스트 전시장에서 3D 프린팅 분야 혁신상을 받은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과 메이크온 브랜드를 통해 선보일 '플렉서블 LED 패치(가칭)'를 공개

### 아모레퍼시픽 –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 플렉서블 LED 패치



####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3D 프린터 개발업체 링크솔루션과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을 개발

-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 크기, 피부 특성을 반영해 나만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술
- 마스크 도안을 실시간으로 디자인해 5분 안에 나만의 마스크팩을 제작할 수 있음
-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 서비스는 2020년 4월, 아이오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될 예정

#### '플렉서블 LED 패치'는 자유롭게 휘어지는 LED를 피부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뷰티 기기

- 피부 고민에 맞춰 설계한 LED 광원이 탄력, 톤업, 진정 등 집중 케어를 제공
- 무게가 가벼운 모듈형 설계로 착용 부담을 줄였으며, 제품은 2020년 5월, 메이크온 브랜드를 통해 출시될 예정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아모레퍼시픽

## 14.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 Welt

2016년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서 스피노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웰트(Welt)는 모션 센서와 마그네틱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 벨트 프로(Smart Belt Pro)'를 공개. 웰트는 낙상 예방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벨트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

### Welt – IoT 센서로 좌우 밸런스를 감지하는 '스마트 벨트 프로(Smart Belt Pro)'



#### '스마트 벨트 프로'는 사용자 보행 패턴이 무너지는 것을 분석해 낙상 위험을 미리 예측

- '스마트 벨트 프로'는 몸 중심에 위치한 센서가 측정하는 안정적 신호를 바탕으로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측정할 수 없는 미세한 걸음 패턴을 감지
- 벨트 버클에 내재된 모션 센서와 마그네틱 센서가 좌우 밸런스를 분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주·월 단위로 걸음걸이 및 걸음 스피드 등을 분석
- 벨트 구멍마다 센서가 있어서 체중이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 벨트가 인지

#### '스마트 벨트 프로'는 넘어짐을 감지하는 것보다 사전에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둠

- 기존 여러 웨어러블 제품들이 낙상 감지 기능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낙상이 발생한 이후 감지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에서 나아가 보다 진보한 제품임

Source: Welt,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5. 슬립테크 분야 – Philips (1/2)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웨어러블 기기 2종을 전시. 올해 2분기에 출시 예정인 '딥슬립 헤드 밴드2(Deep Sleep Head Band2)'는 수면 전 머리에 착용하면 오디오톤으로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

### Philips –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웨어러블 기기 '딥슬립 헤드 밴드2(Deep Sleep Head Band 2)'



Source: Philip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5. 슬립테크 분야 – Philips (2/2)

'코골이 방지용 밴드(Snoring Relief Band)'는 허리에 착용하고 취침 시, 자세가 바뀌고 코를 골기 시작하면 진동이 와서 돌아 눕도록 도움. 필립스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를 사용한 86%의 이용자들은 1달 이용 후 코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Philips – 허리에 착용하는 '코골이 방지용 밴드(Snoring Relief Band)'



Source: Philip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Philips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6. 패밀리테크 분야 – P&G (1/2)

미국의 소비재 기업인 P&G의 신제품 '루미 바이 팜퍼스(Lumi by Pampers)'는 아이 기저귀에 센서를 달고 침대에 모니터를 설치해 아이의 각종 상태를 점검하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베이비테크'를 선보임

### P&G – 기저귀에 부착하는 센서와 비디오 모니터를 결합한 '루미 바이 팜퍼스(Lumi by Pampers)'



#### 액티비티 센서(Activity Sensor)를 P&G의 팜퍼스(Pampers) 기저귀에 부착해 사용 가능

- 기저귀에 부착된 센서는 아이의 배변 활동과 수면 시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맞은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기저귀를 갈았을 때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전달
- 올인원 유아 케어 시스템은 아기의 기저귀를 언제 교체해야 할지 예측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줌

#### 모니터링 카메라는 1080p HD 화질이며, 180도까지 넓은 각도에서의 레코딩 가능

-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의 환경을 모니터링 가능
- 기저귀 센서, 모니터링 카메라로 구성된 루미(Lumi) 패키지 가격은 약 350달러

Source: P&G,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6. 패밀리테크 분야 – P&G (2/2)

기저귀에 부착하는 센서와 카메라 정보는 '루미 바이 팜퍼스'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어 부모는 아이의 배변 및 수면 패턴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기저귀를 언제 교체해야 할지 알려줘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줌

### P&G –기저귀에 부착하는 센서와 비디오 모니터를 결합한 '루미 바이 팜퍼스(Lumi by Pampers)'



Source: P&G,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6. 패밀리테크 분야 – Happiest Baby (1/2)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둔 해피스트 베이비(Happiest Baby)는 0~6개월 유아를 위한 옷 '슬리피(Sleeppea)'와 아기 전용 침대를 전시

### Happiest baby – 유아를 위한 옷 '슬리피(Sleeppea)'와 아기 전용 침대



해피스트 베이비는 6개월 이내 신생아를 위한 옷 '슬리피(Sleeppea)'와 전용 아기 침대를 전시

- 신생아들은 팔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가운데 '슬리피'는 유아가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밴드가 있는 것이 특징
- 흔들거리는 아기 침대에는 마이크로폰이 내재되어 있어 아이가 울면 부모는 바로 즉각적으로 알람을 줌
- 아이의 옷과 침대를 고정시키는 것은 특히로 등록됨

Happiest Baby는 의사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였고 2016년 첫 제품을 공개

- 아마존에서 S, M, L 사이즈의 옷을 약 3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흔들 침대는 약 300달러에 판매. 하루에 3달러 수준으로 렌트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유아용품으로 FDA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향후 유아 안전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

Source: Happiest baby,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6. 패밀리테크 분야 – Happiest Baby (2/2)

팔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신생아들은 종종 뒤집어지곤 하는 가운데, 해피스트 베이비의 '슬리피' 옷은 아이가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며, 전용 침대와도 연결하여 바른 자세로 있을 수 있도록 함

### Happiest baby – 유아를 위한 옷 '슬리피(Sleeppea)'와 아기 전용 침대



Source: Happiest baby,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7. 펫 테크 분야 – Link AKC (1/2)

미국의 링크(Link) AKC는 강아지 목줄에 달아서 강아지의 위치와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 '링크(Link)3'를 전시

### Link AKC – 강아지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링크(Link)3'



링크3에는 GPS 및 IoT 센서가 탑재되어 강아지의 위치 추적 및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으며, 강아지가 설정한 반경을 벗어날 경우 주인에게 알람을 줌
- 원격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여러 종류의 라이트를 켤 수도 있고, 강아지가 침대나 쇼파에 올라갈 경우 기기가 진동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음

CES 2020에서 전시한 Link3 버전은 2020년 5월 출시 예정이며 출시 국가 및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

- 제품은 약 150달러에 구매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 구독료로는 월별 약 6달러
-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향후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며 강아지 외에도 고양이용 제품도 개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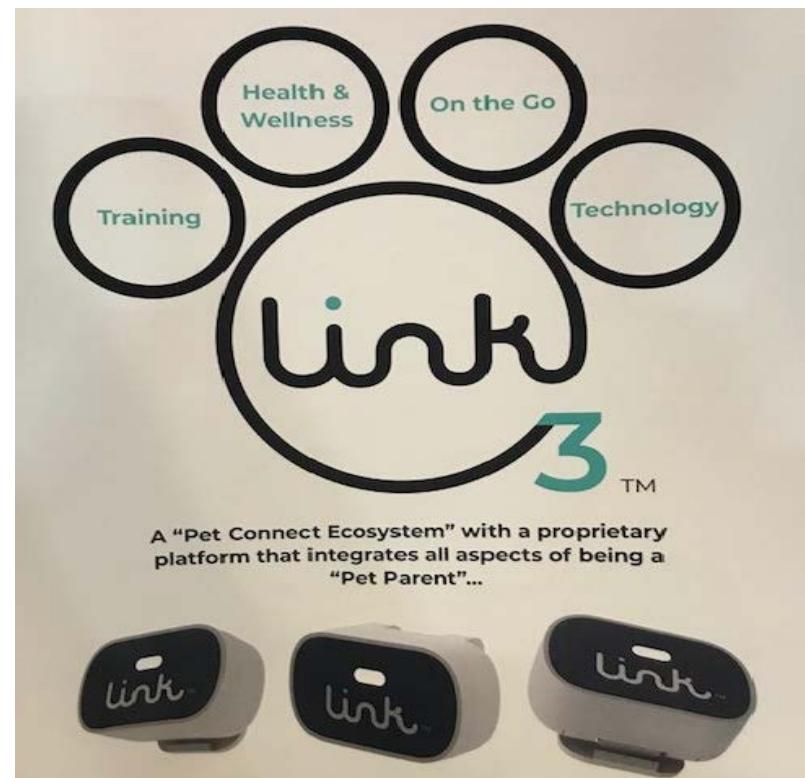
Source: Link AK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7. 펫 테크 분야 – Link AKC (2/2)

애플리케이션에는 강아지용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주위에 강아지를 위한 호텔, 레스토랑, 산책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강아지 중심의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함

### Link AKC – 강아지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링크(Link)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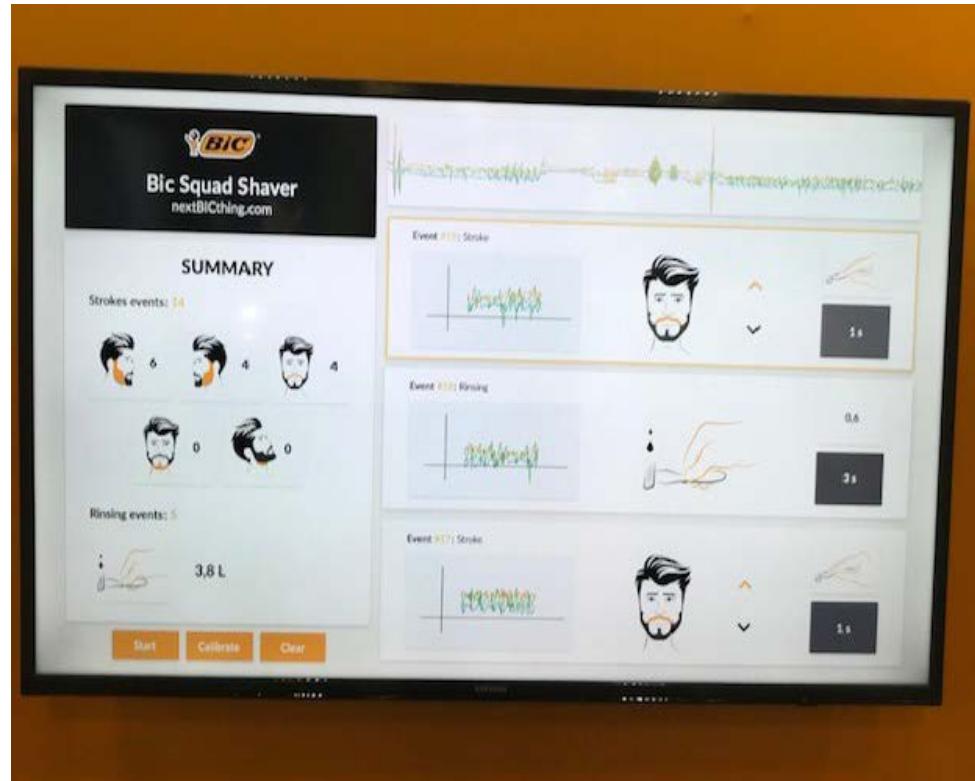
Source: Link AK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8. 면도기 분야 – Bic

프랑스 소비재 회사인 빅(Bic)은 그리스에 위치한 면도기 R&D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쿼드 쉐이버(Squad Shaver)' 프로젝트를 소개. 프로젝트 참여자는 각종 센서가 장착된 면도기를 제공받고, 빅은 소비자의 면도 패턴(횟수, 방향, 강도)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를 제품 개발에 활용

### Bic – 소비자의 면도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R&D 프로젝트 '스쿼드 쉐이버(Squad Shaver)'



Source: Bi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9. 칫솔 분야 – Colgate (1/2)

미국의 소비자 기업인 콜게이트(Colgate)는 옵티컬 센서가 장착된 전동 칫솔 '플라크리스 프로(Plaqueless Pro)'를 공개. 전동 칫솔과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치를 예방하고 양치 습관을 확인할 수 있음

### Colgate – 광학 센서가 장착된 전동 칫솔 '플라크리스 프로(Plaqueless Pro)'



#### '플라크리스 프로'는 광학 센서를 사용한 전동 칫솔로 건강 및 미용부문 CES 혁신상을 수상

- 양치하면서 실시간으로 특정 치아에 양치가 더 필요한 경우 칫솔에 파랑 불빛이 뜨며, 해당 부위 양치가 완료되면 하얀색으로 바뀜
- 전동 칫솔과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양치 습관에 대한 요약(양치 시간, 양치 빈도, 양치 커버리지) 내용을 볼 수 있음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치아가 잘 닦이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며, 기존에 양치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함

#### 콜게이트의 3번째 전동 칫솔 모델이 될 '플락레스 프로'는 2020년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

- 구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콜게이트는 2018년 처음으로 애플(Apple)과 협업하여 전동 칫솔을 출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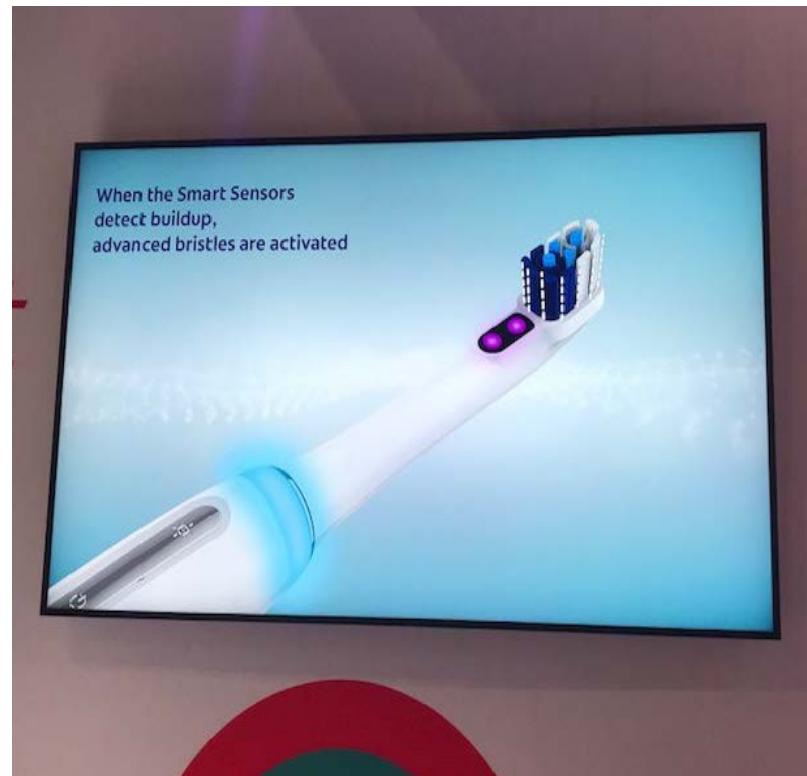
Source: Colgat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19. 칫솔 분야 – Colgate (2/2)

'플라크리스 프로' 전동 칫솔은 사람마다 다른 입안의 상세한 실시간 정보와 개인별 칫솔질 방법을 알려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칫솔질의 즉각적인 피드백, 개인별 데이터, 코치 내용과 구강 건강에 대한 팁을 제공

### Colgate – 광학 센서가 장착된 전동 칫솔 '플라크리스 프로(Plaqueless Pro)'



Source: Colgat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0. 양자컴퓨팅 분야 – IBM

IBM은 글로벌 100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양자컴퓨팅의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엑손모빌,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기업들과 최적화 및 금융 리스크 분석 등에 양자컴퓨팅 'IBM Q System One'을 활용하고 있음

### IBM – 양자컴퓨팅 'Q System One' 전시



Source: IBM,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BM은 양자컴퓨팅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분야와 활용 사례를 설명

- **화학 (Chemistry):** 쿼텀 컴퓨팅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원자들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 신약 개발이나 반도체 및 배터리 소재 분야에 활용
- **최적화(Optimization):** 금융 리스크 관리, 최적의 경로 추천과 같이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활용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데이터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질병 진단, 에너지 관리, 위조 방지 등에 활용 가능
- **시나리오 시뮬레이션(Scenario Simulation):**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력 향상. 금융상품 개발 및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 과정에 양자컴퓨팅이 활용 가능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1. 자동차 검사 분야 – Proov Station (1/2)

프랑스 스타트업인 프루브 스테이션(Proov Station)은 매뉴얼로 작업하는 자동차 검사를 자동화하는 기기와 솔루션을 개발. 3초 동안 카메라 센서가 자동차의 360°를 촬영하여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

### Proov Station – 자동차 검사를 자동화하는 기기와 솔루션



자동차가 ‘프루브 스테이션’ 기기 안으로 들어가면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가 자동차를 360° 스캔

- 약 3초간 자동차 정면, 후면, 사이드, 하단까지 600여장의 사진을 촬영함
- 이를 바탕으로 스크래치가 발생한 지점부터 바퀴 마모도, 예상되는 수리 견적까지 확인할 수 있음
- 자동차 검사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스크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자동차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리스 회사,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딜러,  
물류 회사 등을 잠재 고객사로 보고 있음

- 자동차의 상태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구매 가격을 추천해주는 종합 자동차 관리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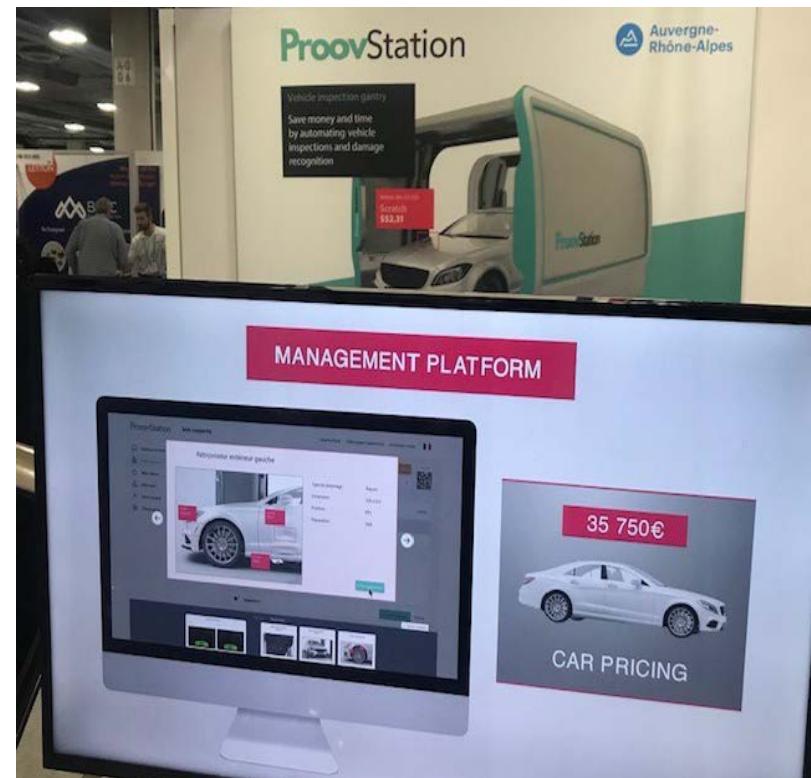
Source: Proov Statio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1. 자동차 검사 분야 – Proov Station (2/2)

프루브 스테이션은 CES에서 최근 프랑스계 자동차 경매 기업인 BCA에게 프루브 스테이션의 기기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으며 2020년 2월부터 유럽 13개국에서 이용될 예정. 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의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임

### Proov Station – 자동차 검사를 자동화하는 기기와 솔루션



Source: Proov Station,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2. 상영 기술 분야 – CJ 4DPLEX

CJ CGV 자회사인 CJ 4DPLEX는 혁신적인 상영 시스템을 탑재한 통합관 '4DX 스크린'을 선보임. 체험관에는 4면 스크린X와 5각 사다리꼴 스크린, 모션 범위가 최대 10배 정도 확대된 4DX 신규 좌석을 장착. 향후 4DPLEX의 특별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Korea) 스크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CJ 4DPLEX – 혁신적인 상영 시스템을 탑재한 통합관 '4DX 스크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CJ CGV

###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 23. 여행용 가방 분야 – Modobag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모도백(Modobag)은 이동 시 가방 위에 탑승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을 전시. 한번 충전으로 8마일 이동이 가능. 2개의 USB 충전 포트와 GPS 센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핸드캐리(Hand-carry)가 가능한 사이즈로 약 1,500달러에 판매 중

### Modobag – 이동 시 탑승 가능한 여행용 가방



Source: Modobag,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Photograph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Contents

	Page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2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7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25
IV. 시사점	80
V. Appendix	82

## Key Takeaways

1

기존 ICT 제품 분야에서는 **8K, AI, 5G,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이 CES 2020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 이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에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의 주제가 부각됨. 특히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차 중심의 모빌리티 전시가 개인항공기로 대표되는 항공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트렌드를 보여 주목받았으며, 헬스케어의 영역 또한 치료와 재활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임

2

CES 2020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혁신적 프로젝트**가 주목받음. 삼성전자의 공 모양 로봇 '볼리', 인공지능(AI) 인간 프로젝트 '네온', 델타항공의 멀티뷰 전광판 안내 서비스인 '평행 현실' 등은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 사례로 업계와 고객의 주목을 받음. 스타트업이 선보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활발하게 공개되어, CES 2020이 글로벌 기업의 혁신 사례가 펼쳐지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매김

3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전시와 참여가 현저하게 감소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CES 2020에서 **국내 제품과 서비스가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경우가 많았음. CES는 연초에 개최되는 특성과 함께, AI, 5G,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까지 ICT 기술이 활용되는 제반 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혀 한 해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첨단 기술 전시회로 자리잡음. 국내 기업이 '패스트팔로어(Fast-follower)'에서 '퍼스트무버(First-mover)'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E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CES 2020에서는 여러 신기술이 등장했지만 이들 중 **실험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일례로 삼성전자 인공 인간 네온은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된 그래픽을 보여줬으나 실제 전시장에서 관람객과의 대화는 불가능해 더 많은 AI 개발이 필요하며, 현대차의 개인비행체 'S-A1'은 2028년 상용화까지 8년에 이르는 시간이 더 필요

# Contents

	Page
I. Keynote Speech로 본 ICT의 미래	2
II. CES 2020 주요 트렌드	7
III. CES 2020에 등장한 새로운 제품	25
IV. 시사점	80
V. Appendix	82

## V. Appendix

# 1. 세계 주요 ICT 박람회 비교

CES, MWC, IFA는 각각 미국, 스페인, 독일에서 매년 개최. CES와 MWC는 상반기, IFA는 하반기에 개최되어 ICT 주요 박람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ICT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

## 세계 주요 ICT 박람회 비교

구분	CES	MWC	IFA
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
시작 연도	1967년	1987년	1924년
주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미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 GSMA)</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독일가전전자통신협회(Gesellschaft zur Förderung von Unterhaltungselektronik, GFU)</li></ul>
주요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5G 상용화,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헬스케어</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997년까지는 매년 2회 개최</li><li>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증가로 2015년은 'International CES Asia' 개최(중국, 상하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8년부터 3GSM World Congress에서 Mobile World Congress로 명칭 변경</li><li>MWC 2020은 2020.2.24~2.27 개최 예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부터 2005년까지 격년제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다시 매년 개최</li><li>IFA 2020은 2020.9.4~9.9 개최 예정</li></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 CES가 선보인 신제품 및 신기술

CES는 1967년 뉴욕에서 처음 열렸으며, 1970년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VCR이 소개되면서 매년 가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ICT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이 공개되고 있음

### CES에 등장한 주요 트렌드와 혁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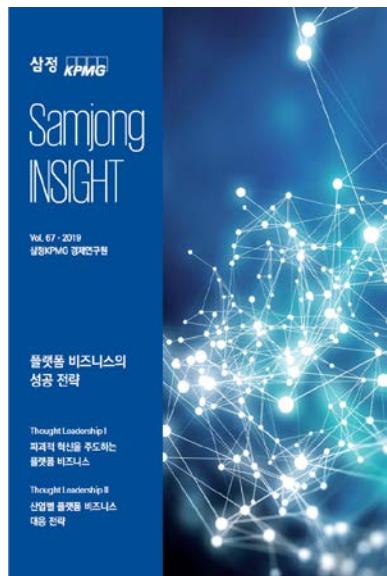
신제품 및 신기술	연도	신제품 및 신기술	연도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1970	콘텐츠 및 테크놀로지의 융합	2007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1974	OLED TV	2008
캠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1981	3D HDTV	2009
디지털 오디오 테크놀로지	1990	태블릿PC, 넷북, 안드로이드 기기	2010
대화형 콤팩트 디스크	1991	커넥티드 TV, 스마트 가전, 전기자동차	2011
디지털 위성 시스템(DSS)	1994	울트라북, 3D OLED	2012
HDTV	1998	울트라 HDTV, 플렉시블 OLED, 자율주행자동차	2013
하드 디스크 VCR(PVR)	1999	3D 프린터, 센서 기술, 곡면 UHD, 웨어러블 기기	2014
위성 라디오	2000	4K UHD, VR, 무인 시스템	2015
MS Xbox, 플라즈마 TV	2001	증강현실, 라이더블 기기, 고음질오디오	2016
홈 미디어 서버	2002	전기자동차,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2017
블루레이 DVD, HDTV DVR	2003	5G, 스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	2018
HD 라디오	2004	폴더블폰, 양자컴퓨터, 자율비행택시	2019
IPTV	2005	8K, AI, 도심항공 모빌리티, 푸드테크	2020

Source: CES Fact Sheet

### 3. See Other Publication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ICT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 및 글로벌 주요 ICT 박람회에 대한 동향과 이슈를 담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Samjong Insight 67호 (2019년 11월 발간)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Contents

###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테크 자이언트의 플랫폼 전략

산업별 플랫폼 비즈니스 대응 전략

개요

모빌리티 산업

## 유통 산업

## 소비재 산업

## 금융 산업

## 헬스케어 산업

— 5 —

보고서 PDF 다운로드

# Market Frontier (2019년 11월 발간) **G-STAR 2019로 본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



## Contents

G-STAR 2019 개요

G-STAR 2019 주요 트렌드

1. 게임대상, 모바일 강세 속 장르 및 플랫폼 다변화 주목
  2. '보는 게임'과 e스포츠, G-STAR의 핵심 볼거리로 자리매김
  3. 글로벌 및 중국 기업의 적극적 전시 참여
  4. 신작 게임에서도 중시되는 IP의 힘
  5. 인디 게임, 창의적·독창적 게임의 원천으로 부각

G-STAR 2019 주요 참가 기업

결론 및 시사점

Appendix

# Business Contacts

## 전자정보통신엔터테인먼트산업 전문팀

### 양승열

부대표

T: 02-2112-0330

E: seungeoulyang@kr.kpmg.com

### 한상현

전무

T: 02-2112-0387

E: sanghyunhan@kr.kpmg.com

### 민성진

상무

T: 02-2112-0852

E: smin@kr.kpmg.com

### 김익찬

상무

T: 02-2112-0468

E: ikchankim@kr.kpmg.com

### 김정기

상무

T: 02-2112-0346

E: jungkikim@kr.kpmg.com

**kr.kpmg.com**

### 염승훈

전무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 오헌창

전무

T: 02-2112-7478

E: heonchangoh@kr.kpmg.com

### 신문철

상무

T: 02-2112-0356

E: moonchulshin@kr.kpmg.com

### 안창범

상무

T: 02-2112-0312

E: cahn@kr.kpmg.com

### 윤주현

상무

T: 02-2112-0374

E: joohunyoon@kr.kpmg.com

### 박성배

전무

T: 02-2112-0304

E: sungbaepark@kr.kpmg.com

### 정현

상무

T: 02-2112-0334

E: heonjung@kr.kpmg.com

### 강인혜

상무

T: 02-2112-0363

E: ikang@kr.kpmg.com

### 노정한

상무

T: 02-2112-0693

E: jroh@kr.kpmg.com

### 최진석

상무

T: 02-2112-7669

E: jinseokchoi@kr.kpmg.com

### 전철희

전무

T: 02-2112-0355

E: cjun@kr.kpmg.com

###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 최이현

상무

T: 02-2112-0505

E: yeehyunchoi@kr.kpmg.com

### 허재훈

상무

T: 02-2112-7707

E: jaehoonheo@kr.kpmg.com

### 차정환

상무

T: 02-2112-7093

E: jeonghwancha@kr.kpmg.com

© 2020 KPMG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